일본 출판 미디어의 혐한의 현황과 비판적 고찰[1]

이홍천[2], 김미림[3], 이경은[4], 황선혜[5]

[1]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학봉재단의 지원 조성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2] 대표저자 도쿄도시대학 부교수 hongchun@tcu.ac.jp
[3] 게이오대학 SFC 연구소 상석 연구원
[4] 한국 콘텐츠 진흥원 일본 사무소 소장
[5] 게이오대학 미디어 디자인 연구소 연구원

요지

본 연구는 혐한 현상이 일본의 출판미디어에서 어떻게 양성되괴 있는가, 또 혐한 현상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혐한 출판물의 발행과 혐한 의식과의 관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 년부터 혐한 서적 출판붐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혐한 서적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혐한 서적과 혐한 기사를 접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한 서적은 2005 년 이후 발행된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으로 55 개의 출판사가 혐한 서적을 출판했다. 혐한 서적은 2002 년 이후의 한국 정치, 역사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영토문제, 위안부문제, 역사문제를 주요 테마로 삼고 있었다. 한편 의식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험과 혐한 이미지, 의식과 행동(혐한 데모 참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또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과 혐한 데모 참가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났고, 인터넷 이용시간과 혐한 이미지, 혐한 의식과의 상관관계도 높았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혐한 이미지, 의식은 한국에 대한 경험과 관련되어 있고, 혐한 데모 참가는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는 내부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혐한 현상이 출판미디어에서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가, 또 이런 현상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혐한 서적의 발행과 혐한 의식과의 관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혐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혐한 서적이 출판된 시기의 한일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혐한은 한일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2 년 이후의 한일관계는 1965 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6]. 영토문제,역사문제로 양국 관계가 냉냉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민의 상호인식도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비율은 2016 년 11 월 현재 59.1%이다. 2014 년 10 월 66.4%에 비하면 7.3% 감소한 수치지만 1978 년 이후 실시된 동 조사에서 3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7].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 년 한일 의식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17.0%로 2015 년의 13.9% 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에도 위안부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 말것인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양국민의 의견의 차는 여전히 좁혀 지지 않고있다.

한일 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양국 정상회담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2012 년 8 월부터 2015 년부터 11 월 2 일부터 4 년간 열리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개최빈도는 양국간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상간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정부간의 교섭과 협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양국간의 다양한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쉬워진다. 2005 년 말에 일본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문제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중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다.

한일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상호방문자 숫자이다. 상대국에 대한

[6] 2015 년 12 월 9 일자. 아사히신문, '戦後 70 年　エピローグ：4　対話　韓流と嫌韓のはざま'
[7] 자세한 내용은 입본 내각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survey.gov-online.go.jp/h28/h28-gaiko/gairyaku.pdf

인식변화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수로 추측할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2012 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 년 352 만명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2015 년에는 184 만명까지 줄었다. 2016 년에는 210 만명으로 2015 년보다 12.4% 늘어났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변화는 혐한 서적과 헤이트스피치의 움직임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민의 인식과 행동이 반드시 합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최악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헤이트스피치 데모 증가를 들 수 있다. 일본 전국에서 발생하는 현함데모가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는 2014 년 8 월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면서 “증오나 인종차별 표현, 데모나 집회에서 인종 차별적 폭력 및 증오의 선동에 대해서는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8].

일본 법무성의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1152 건의 데모가 벌어졌다. 2012 년에는 237 건, 2013 년에는 347 견, 2014 년에는 378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의 숫자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류붐으로 인해서 급증한 한글 학습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각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이 줄어 들어 일부에서는 폐강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9]. 어학은 해당 국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민간이 1 년에 두번 실시하는 한글 능력 검증 시험의 수험생이 2015 년 봄에 9916 명으로 10 년 만에 1 만명을 밑돌았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코리안 타운인 신오쿠보이다. 2016 년에는 매출액이 반감하고 가게문을 닫는 곳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주쿠 한인상인 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 년 현재 한인 상점수는 320 곳이다. 500 이상의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2012 년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했다. 지상파의 한류 드라마와 한류 스타의 출연 방송 출연 감소와 함께 코리아타운도 타격을 입혔다.

---

[8] 일본어 번역은 다음을 참조할 것.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60749.pdf

[9] 마이니치 신문, 2015 년 8 월 24 일 자. ‘特集ワイド：日韓国交正常化 50 周年　2 国の関係”変遷と共に　わが韓国語人生　油谷幸利・同志社大名誉教授’

그러나, 외국인 영화 배급 협회에 따르면 한국 영화는 2015 년 43 편 소개되어 2011 년의 36 편보다 늘었다. 또 일본에서 돔 투어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KPOP 가수도 적지 않고, 관객 동원수 상위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혐한 서적의 발행 붐으로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출판 안내 이전에도 예약이 쇄도하는 경우도 있다[10]. 2014 년 8 월에는 20 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도 등장했다. 신문을 펼치면, 한국을 비난하는 주간지 광고가 다수 게재되어 있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는 'JAPANESE ONLY'라는 플레카드가 걸려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혐한 서적의 출판은 혐한 무드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한 서적이 어느 정도 출판되었는지, 혐한 서적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테마나 편집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혐한 출판물에 접촉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1.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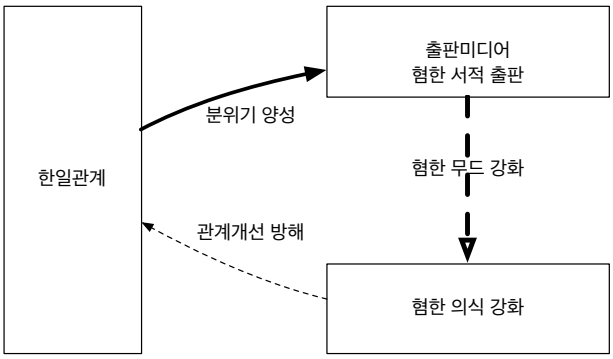


그림 1 분석 프레임

1-1 일본의 출판 미디어의 혐한 실태 분석

혐한이라고 하면 헤이트스피치 등 눈에 띄기 쉬운 행동에 주목이 집중되기 쉽기 때문에 문제의 실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혐한이라는 용어를 일본

[10] 산케이신문, 2014 년 8 월 2 일자 기사에 따르면 후소샤가 같은 해 5 월 2 일에 발매한 '韓国人による恥韓論'은 예약 주문이 쇄도해서 발매전에 증판을 결정. 발매 3 주만에 10 만부를 돌파했다.

사회에 정착시킨데는 출판미디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출판붐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5 년에 출판된 “マンガ嫌韓流(만화 혐한류)”이다. 이 책은 발행과 동시에 30 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합병, 강제연행, 전후보상, 외국인 참정권, 한글의 역사,(한국문화는)일본문화의 흉내, 한일 월드컵의 속 사정,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의 중요한 정치・문화의 문제에 대한 진실이 균형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그려져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책은 ‘객관성’, ‘알기 쉬움’과 같은 그 후의 혐한 서적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두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조선인은 싫다, 중국인도 싫다, 한국과 중국은 지긋지긋하다”라는 본심을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일본인의 마음속에 고인 억제된 감정을 분출하게 하는 ‘가스 빼기(불만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혐한 서적의 출판붐은 외국의 미디어에도 다뤄지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New York Times 지는 “Ugly Images of Asian Rivals Become Best Sellers in Japan”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모두 일본의 덕분이고 한국문화는 프라이드를 가질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만화 혐한류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혐한 서적의 배경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혐한 서적의 출판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둘러 싼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한 서적의 실체는 본격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혐한 서적의 분석을 통해서 혐한인식의 변천과 실체를 분석하겠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국사회에 대한 선호도, 혐한 데모의 참가, 혐한 데모의 주장에 대한 찬반으로 설정했다. 독립변수는 한국에 대한 경험, 인터넷 이용 일본사회/정치에 대한 만족과 일본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로 설정했다.

분석기간은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 10 년간을 선택했다. 혐한 서적은 1990 년대에 이미 출판되었지만 숫자는 미비하다. 대부분의 혐한 서적은 “만화 혐한류”가 베스트셀러가 된 2005 년 이후 출판되었기에 분석기간은 이에 맞춰서 설정했다. 분석대상은 혐한 서적이지만, 혐한 서적이라는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さらば” ヘイト本”에서 제시한 혐한에 대한 정의를 혐한 서적의 선정기준으로 차용했다.” 다른 나라를 싸잡아서 다른 민족을 비웃거나, 민족차별과 배타주의를 선동하는 책”

그러나 이런 정의만으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한국인・한국사회・한국문화・한국정치로 혐한의 대상을 세분화 했다. 물론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면 혐한 서적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겠지만, 이번에는 분석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의 정의를 채택했다. 분석 항목은 표 1 과 같다.

표 1 혐한 서적의 분석 항목

내용	詳細
출판사	출판사명
저자의 숫자	집필자 수
저자의 국적	집필자의 국적(일본, 한국, 중국, 대만, 기타 2 개국 이상의 이중국적)
서적의 테마 (대분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교육 등(복수 선택)
혐한 서적의 대상국가	한국, 중국, 북한
혐한 서적의 집필 톤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 대상과 일본의 양자에 대해서 비판적
혐한 서적의 집필 방법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 저자의 의견을 중심
혐한 서적의 인용정보원	한국측의 정보 우선, 일본측의 정보 우선, 양국의 정보를 균등하게 인용
혐한 서적이 대상으로 삼는 시기	1910 년부터 1945 년, 1946 년부터 1991 년, 1992 년부터 2002 년, 2002 년 이후
혐한 서적의 내용	위안부 문제, 영토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어업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산케이신문 문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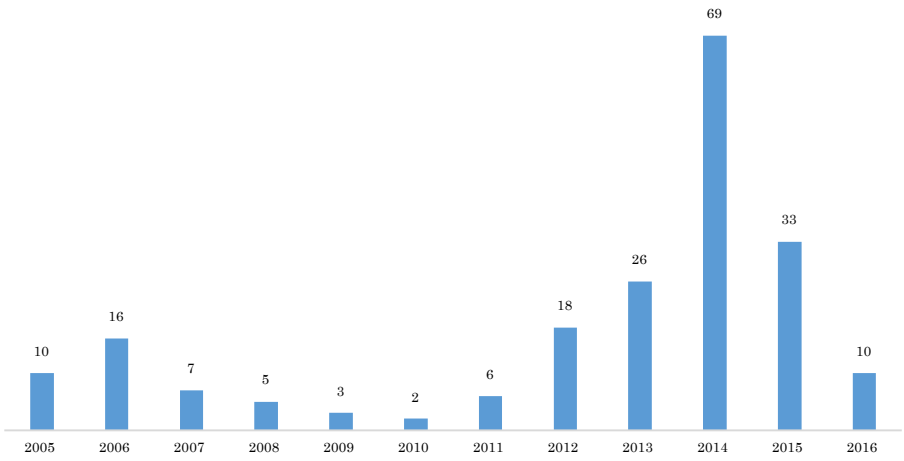


그림 2 혐한 서적 발행 추이

1-2 혐한 출판 미디어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

미디어에 대한 영향을 고찰할 때, 미디어에 대한 접촉도와 이용시간은 중요한 요인이다. 어떤 미디어에 접촉하고 있는가는 조사하면 미디어의 영향은 예측가능하다. 또 미디어 이용시간도 미디어의 영향을 예측하는 요소중의 하나다. 일본의 언론NPO와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94.3%, 한국인의 94.6%가 상대국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자국 미디어'를 들었다[11].

그러나 출판물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적었다. 일본인 8.9%, 한국인 16.6%가 출판물을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보면 일본인에 대한 혐한 서적의 영향은 적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12].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한정하기 위해서 혐한 서적이나 혐한 잡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응답자의 13.0%가 읽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언론NPO'/'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결과 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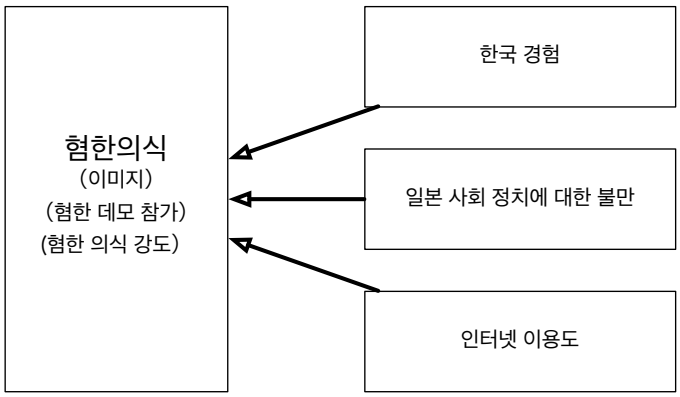


그림 3 서베이 분석 프레임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혐한 텍스트에 접촉한 사람과 혐한 의식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험, 인터넷 이용, 정치적 감각을 분석 프레임으로 선택했다. 혐한 서적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인 서평과 이것이 인터넷에 인용되는

[11]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언론NPO', '동아시아 연구원'이 실시한 제3회 한일 공동여론조사"한일 여론 비교 결과"

[12] 질문은"상대국과 한일 관계에 대한 정보원"을 묻는 내용이다.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혐한 텍스트에 접촉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혐한 출판 미디어의 이용현황과 이용자의 속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혐한 서적이 한국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식 프레임 형성과 혐한의식간의 관계가 밝혀지면 혐한에 대한 이해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서베이 조사는 12 세 이상의 혐한 서적이나 텍스트에 접한 적이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독립변수는 접촉한 혐한 출판 미디어의 종류, 접촉 전후의 인식 변화, 한국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정보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찬반, 혐한 데모 참가 여부, 한국인과 교류 여부, 방한 여부, 일본 정치에 대한 유효성 감각등이다. 조사를 통해서 연령, 접촉한 출판미디어, 혐한 서적에 접촉한 일반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3 출판 붐의 형성과 메카니즘 분석

본 연구는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혐한 서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혐한 서적은 어떤 기획의도로 출판되었는가, 혐한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또 출판에 이르기까지 출판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내부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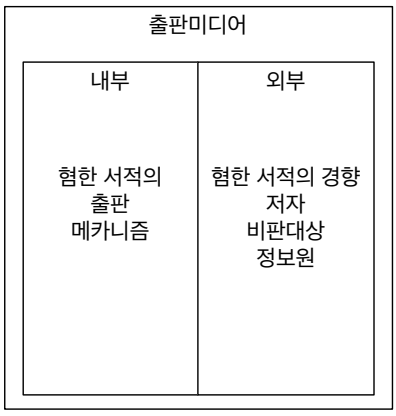


그림 4 출판미디어 분석 프레임

이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으로는 혐한 서적의 트렌드와 경향성, 혐한서적, 혐한

기사에 접촉한 사람들의 혐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외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의 분석은 혐한 서적이 출판된 후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적 요인의 분석은 혐한 서적이 출판되기까지의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출판의도, 출판 내용을 편집자에게 물어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을 밝힌다.

1 장 혐한 의식의 현황

1-1 혐한의 정의

혐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한은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혐한은 어떤 개념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혐한 서적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혐한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겠다.

키무라 유키히로(木村幸彦)는 ‘さらば’ ヘイト本！’(2015)에서 혐한 서적을 “다른 나라(구체적으로는 한국)를 싸잡아서 조사하거나 민족 차별과 배타주의를 선동하는 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인종차별 철폐 조약 제 4 조의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단체의 조직적 선전활동과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조직적 선전활동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행하는 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키무라는 헤이트 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혐한 서적을 지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New Youk Times 는 2005 년 11 월 19 일자에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크게 다뤘다. 기사에서 같은 해 발매된 ‘만화 혐한류’의 타이틀을 ‘hating the Korean wave’ 라고 번역하면서 일본의 혐한 의식을 ‘hating korea feeling’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일본 법무성의 인권 옹호국이 배포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계몽 포스트에는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동”이라고 기재하고 있다[13].

위와 같은 내용에서 보면 혐한은 “민족차별 및 배타주의를 선동하고 한국을 싸잡아서 조사하는” 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혐한은 한국이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정치, 한국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혐한 서적의 타이틀을 살펴보면 혐한은 조소, 야유, 경멸, 경시, 냉소, 무시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행동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헤이트 스피치이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혐한 서적은 조직적인 선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혐한과 관련된 유사 개념들을 검토하겠다.

[13] 법무성,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실체 조사 보고서”

배외주의:배타주의는 “자신 이외의 것을 배척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서 배외주의는 ‘외국인과 외국의 사상 문물을 배척한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서구에서 배외주의는 사회계층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세븐틴(1963)이나 히키타구니오의 ‘흉기의 사쿠라’(2000)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우익, 민족주의 운동에 경도된다’는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일본의 배외주의가 단순한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신화라고 보도하고 있다[14].

타나베(田辺)는 배외주의를 통치 동화에 초점을 맞춘 ‘반이민=immigrants 계’, 편견과 내셔널리즘과의 관계를 중시한 ‘공포=phobia ・ 비배척’, 자원경쟁과 사회계층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위협=treat(인지)계’로 구분했다. 타나베는 선행연구의 개념들이 복수의 하위개념을 상정하고 있지만 하위개념간의 상호 관련성이 애매하다고 비판 하면서 4 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체화 한 뒤 상호 관련성을 개념화 했다. 타나베가 제시한 하위개념은 아래와 같다.

①반외국인 주의(정치적 기준으로 타자로 취급되는 외국인에 대한 네가티브한 태도), ②레이시즘(민족적 기준으로타자로 취급되는민족, 인종적 소수파에 대한 테가티브한 태도), ③정치적 위협인지(정치적인 타자를 위협으로 보는 의식), ④문화적 위협인지(문화적 기준으로 타자를 위협으로 보는 의식)

배외주의의 요인으로는 개인의 속성, 불안의 영향, 사회적 아이덴티티, 내셔널리즘의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히구치(2014)는 애국주의는 반중, 반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자존심(프라이드)는 배외주의를 조장한다는 타나베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문화적 프라이드는 배외주의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다(타나베 2015). 타나베는 일본형 애국주의는 반중, 반한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레이시즘과 위협인지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히구치는 언론에 등장하는 재특회 회원의 직업적 특성을 수집해서, 배외주의자는 약자나 빈공층이라는 지적은 단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미주에서도 중산계급이 배외주의를 지지한다는 실증연구도 있다[15]. 미야기(2016)는 일본의 도도부현의 완전 실업률과 도도부현별 인구에서 차지하는 재특회 등록 회원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14] 대만과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진당의 렌호 대표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도쿄신문 2016 년 9 월 21 일자.
[15] P.C. van Gent et al., 2014

헤이트 스피치 데모와 빈곤과는 관련성이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반한감정: 반한감정이란 한국문화, 한국인을 싫어 하는 감정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국가와의 충돌이 잦았다. 근대 이후 서구국가와 교류로 인해 발생한 문화적 편견, 오해 또는 일부 사실에 근거한 반 국가적 감정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일본 국내로 유입되는 개발 도상국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에 대한 반응 중에서 반한감정이 가장 높은 일본은 혐한이라는 용어가 반한감정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고 이는 1990 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5 혐한 개념의 관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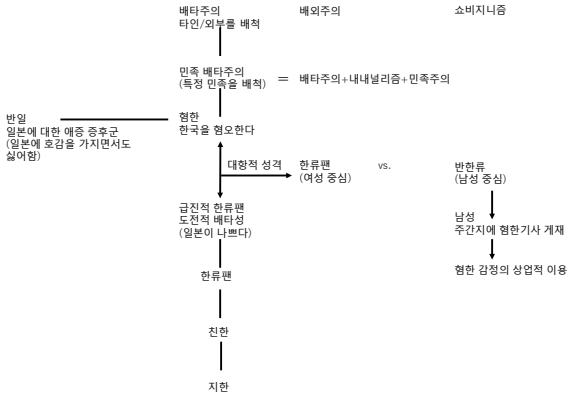


그림 6 혐한개념의 상호 관계도

한국에서 혐한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의 대부분은 인터넷 우익, 재특회, 미디어 내셔널리즘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고 혐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혐한 현상에 대한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혐한 서적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을 유출한다면 그림 6 과 같은 관계도를 제시할 수 있다. 혐한의식은 특정 민족(여기서는 한국)을 배척할려는 움직임이고 다양한 감정적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신문보도에 나타난 혐한

신문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고, 혐한 움직임은 신문보도에 투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일상적인 보도는 일본 사회의 기층에서 움직이는 국민감정을 반영된다. 이와 같은 신문의 특징을 살려서, 신문보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쟁점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더해서 본 논문은 혐한이 등장하는 문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혐한이라는 키워드가 일본 신문에 등장한 1992 년 이었다. 따라서 기사 검색은 1992 년 이후로 한정했다.

그림 7 혐한 키워드 등장 비율

그림 7 은 혐한이 등장한 전국지 기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이니치, 산케이 신문은 각각 30%, 아사히 25%, 요미우리가 15%를 차지했다. 전국지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으로 나눠서 집계하면 진보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보수신문의 비율은 45%였다. 한국의 시점에서 본다면 보수신문이 혐한을 더 자주 언급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는 이와는 반대였다. 혐한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혐한을 조장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진보신문이 혐한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신문사별 협한 키워드의 등장

신문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합계
1992	5	6	5	5	21
1993	2	12	6	9	29
1994	2	4	2	3	11
1995	2	4	1	2	9
1996	4	2	9	3	18
1997	1	6	1	2	10
1998	4	18	7	4	33
1999	0	1	2	1	4
2000	0	1	0	0	1
2001	4	3	2	1	10
2002	3	4	3	2	12
2003	0	3	0	1	4
2004	1	1	0	0	2
2005	6	13	2	6	27
2006	8	3	11	5	27
2007	4	4	1	3	12
2008	3	8	2	0	13
2009	0	1	1	0	2
2010	1	1	0	0	2
2011	3	1	2	0	6
2012	1	3	2	0	6
2013	5	6	13	3	27
2014	31	21	40	4	96
2015	33	17	28	20	98
2016	3	3	5	2	13
합계	126	146	145	76	493

검색은 각 신문사의 데이베이스를 이용. 검색 키워드는 '혐한'.

분석기간을 한국의 정권별로 분류해서 집계하면 다른 내용을 읽을 수 있다. 그림 8은 정권별로 혐한 용어의 등장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로 본다면 2가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시기에 따라서 혐한을 사용하는 신문사의 비율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산케이신문은 김영삼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까지 혐한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서 아사히신문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은 시계열적인 면에서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혐한을 사용하는 진보신문의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하는 한편 보수신문의 비율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보수신문의 총 합계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케이와 요미우리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도우파 신문으로 불리는 요미우리신문은 김영삼 노무현 정권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비율은 보이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영삼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기에 혐한 용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5 년간은 혐한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즉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단, 박근혜 정권때는 예외적이었다.

2012 년을 제외하면 혐한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신문은 산케이였다. 김대중 정권때는 전체의 45%, 이명박 정권 때는 48.3%를 차지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2012 년에 혐한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가토 서울 지국장이 기소되어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혐한 용어를 사용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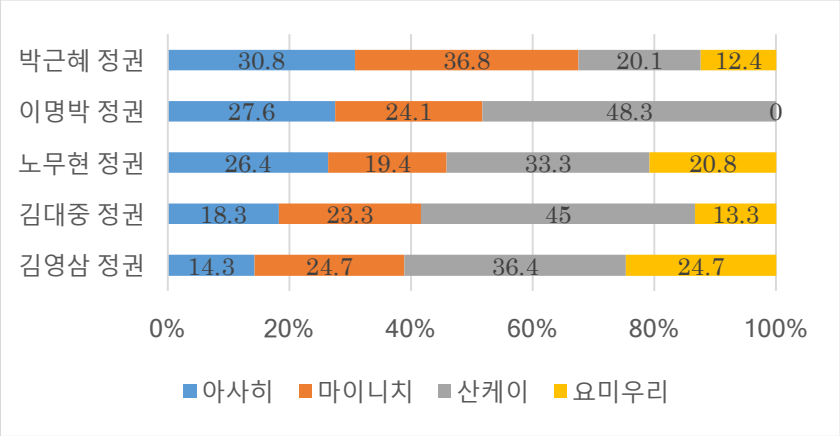


그림 8 정권별 혐한 키워드 등장 비율

두 번째는 2008 년을 기점으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비율이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진보신문의 비율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보수신문을 웃돌았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비율은 진보신문 우세가 분명해 졌다.

이런 결과는 2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보수신문이 의도적으로 혐한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본 사회에 혐한 무드가 퍼져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혐한이라는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나,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록을 둘러싼 한일간 마찰이 보도될 때 마다 일본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은 높아진다. 진보신문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혐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표 3 혐함 보도의 4 가지 시점

	내부요인	외부요인
정치, 외교	①	②
언론, 인터넷	③	④

신문보도에서 혐한은 4 가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은 다음의 표와 같은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혐한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라는 공간적인 문맥이다. 이는 혐한을 일본내부의 문제로 볼것인가 아니면 외부 즉 한국의 문제로 볼 것인가는 시점이다. 이들 두가지 시점은 혐한이 발생하는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구체화 할려는 것이다. 다음 측면은 원인을 일으키는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문맥에서 정치와 외교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나 인터넷의 책임인가라는 것이다. 이는 혐한을 불러 일으키는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시점이다. 이들 시점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4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1-2-1 내부요인으로서 혐한

혐한을 일으키는 원인이 일본 국내에 있다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혐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본의 미디어(특히 아사히신문)이다. 정치 외교문제를 지적하는 문맥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런 시점은 아사히의 보도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혐한의 원인이 일본의 미디어에 있다는 문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문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혐한류'의 저자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인식이다. 야마노는 혐한류의 발생에 대해서 "혐한류는 한국과 한류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비판을 터부시하는 일본의 주요 미디어의 보도 풍조에 대새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서를 다수 집필한 미쓰하시

다카아키(三橋貴明)는 “주요 신문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칭찬만 늘어 놓는 반면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혐한서적 출판 이유가 일본 미디어의 보도 논조에 있다고 밝혔다(산케이, 2014 년 1 월 11 일).

이즈무라 후사카즈(伊豆村房一)와 위의 두 사람과는 다른 시점에서 일본의 미디어를 비난하고 있다. 이즈무라는 미디어가 한일간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혐한 혐중이 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비난했다(산케이, 2015 년 9 월 6 일). 산케이는 한류붐은 일부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지만(2005 년 9 월 9 일)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한류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아사히신문은 190 건인데 비해서 산케이는 281 건에 달했다.

반면에 이들 신문사들은 일본의 주간지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주간지의 혐한 보도에 대해서 “팔린다면 뭐든지 괜찮다는 작금의 편집 방침에 대해서는 회의적”“혐한 혐중 뿐이고(일본의)정권 비판은 주저하고 있다”“최근의 잡지 기사는 헤이트스피치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2015 년 6 월 27 일). 또 일본의 미디어가 한국의 일본 비판을 반일 행동으로 보도하는 것이 일본의 혐한 무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5 년 4 월 25 일).

다음으로 일본의 정보환경의 발달이 원인이라는 문맥이다. 이 문맥에 따르면 혐한은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고 일본 사회에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지적이다. 혐한 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서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즉 현상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혐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사죄외교가 원인이라는 시점도 있다(산케이, 2015 년 1 월 18 일). 요미우리도 산케이와 비슷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생각이 일본의 주류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터넷상에서는 차별적인 발언이라도 자기의 목소리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혐한이 주목받는 환경을 조성했다(요미우리 2015 년 10 월 20 일).

이런 문맥에서는 일본사회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을 읽어 낼 수 있다. 인터넷 보급에 따른 혐한의식의 네트워크화는 배타주의의 대두를 억제해 왔던 일본 사회의 규범을 약화시켰다. 2002 년 한일 월드컵이 혐한 의식을 자극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혐한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은 인터넷이다(2015 년 12 월 15 일).

1-2-2 외부 요인으로서 혐한

이 문맥은 혐한의 원인은 일본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외부 요인으로서 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가의 언동이고 특히 한국의 대통령의 언동이 주범이라는 인식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한국 미디어의 대일 보도이다.

혐한 용어를 사용하는 기사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 중에서 가장 등장빈도가 많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는 2012 년 대통령으로서 독도에 처음 상륙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내의 혐한의식은 급속하게 높아졌다(요미우리 2015 년 1 월 11 일). 산케이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표면화 되지 않았던 혐한 감정을 일본 사회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산케이 2014 년 1 월 11 일).

요미우리는 일본의 혐한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내의 여론에 영합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요(요미우리 2015 년 6 월 22 일)하고, 제 3 국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고자질 외교를(요미우리 2015 년 12 월 29 일)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본내의 혐한감정을 선동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한일협정 내용을 확인할려고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는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는 한국의 대통령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2015 년 5 월 21 일). 산케이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이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15 년 6 월 22 일).

반일을 다루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반감이 혐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내에서 반일을 오락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예를들면, 광복 70 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반일영화에서 일본을 웃음거리로 가볍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산케이 2015 년 6 월

22 일).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판에 소개된 기사 중에서 아베수상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고, 이들 내용이 일본의 혐한 서적의 테마로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블로그나 트위터에 인용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 미디어의 기사가 반한감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설적인 경우다. 산케이의 구로다 편집위원은 실체와 동떨어진 (한일관계의)불건전함에는 미디어의 책임이 많고 특히 한국의 언론이 한일간 협력관계를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산케이 2015 년 1 월 11 일). 구로다 위원은 한국 언론의 반일보도가 일본어판으로 일본에 소개되고 이들 기사가 일본인의 감정을 자극해서 반한감정이 높아지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고 분석했다(산케이 2015 년 4 월 12 일).

그 이외에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 대립이 일본 국내의 혐한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책임은 양국에 있다는 논조도 있다(요미우리 2015 년 10 월 30 일). 무토우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올바른 것은 한국이니까 일본은 따라라고 계속해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이 혐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요미우리 2015 년 6 월 9 일).

1-2-3 혐한에 미치는 영향

혐한무드는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 미디어는 혐한으로 인해서 한류가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혐한 무드가 강해지면 한류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한류팬들을 한국에서 멀어지게 만든다(요미우리 2015 년 5 월 14 일). 혐한의 흐름은 2015 년 혐한 서적의 출판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숫자도 2012 년을 정점으로 30% 이상 줄어들었다(요미우리 2015 년 6 월 22 일). 한류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줄어들었고 K-POP을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아사히 2015년 11월 22일).

1-3. 잡지보도의 혐한(嫌韓)

1-3-1. 혐한(嫌韓)키워드의 등장

일본 미디어에 「혐한(嫌韓)」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 년이다. 본 절에서는 일본 잡지에 혐한 보도의 경향을 조사,분석했다. 분석에 사용한 키워드는「혐한(嫌韓)」,「반한(反韓)」,「악한(悪韓)」,「매한(呆韓)」,「증한(憎韓)」,

「정한(征韓)」,「우한(愚韓)」이다. 키워드는 제 2 장 혐한 단행본의 제목을 참조해서 추출하였다. 위의 7 개의 키워드를 사용해 추출된 잡지 기사는 총 143 건이었다. 발행된 잡지는 총 70 권이고 총 119 명이 기사작성에 참여했다. 위 키워드 이외에 다른 키워드를 사용한 기사도 많기 때문에 관련 기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서 이번 조사는 7 개 키워드로 검출된 기사에 한정했다. 키워드별 보도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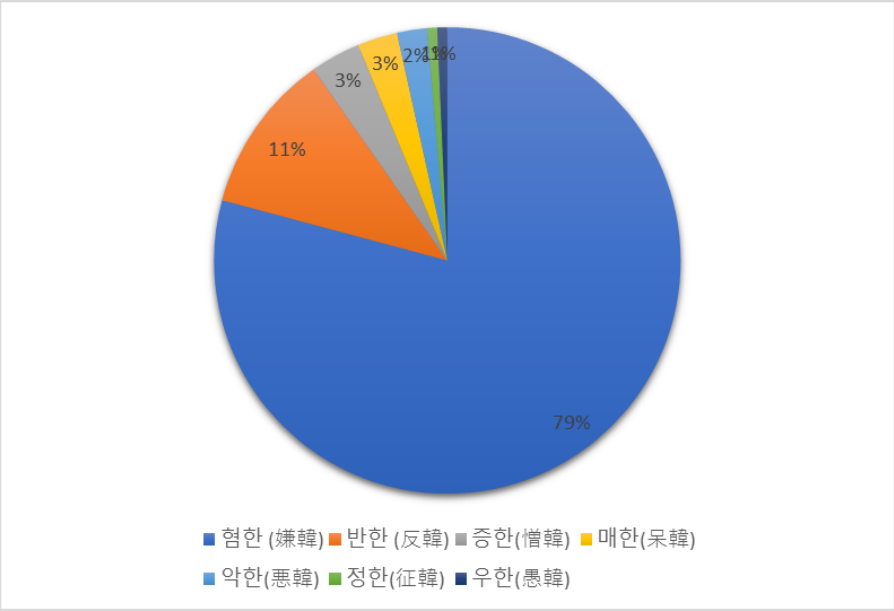


그림 9 잡지에 등장한 혐한관련 키워드

총 143 건의 기사 중,「혐한(嫌韓)」을 사용한 기사는 79% 를 차지했다. 「반한(反韓)」 11%,「증한(憎韓)」과 「매한(呆韓)」이 각각 3%, 「악한(悪韓)」2%,「정한(征韓)」과「우한(愚韓)」이 각각 1%로 나타났다. 잡지 기사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1996 년과 2006 년에 10 건 이상의 기사가 게재됐고, 2012 년 이후는 매년 10 건 이상의 혐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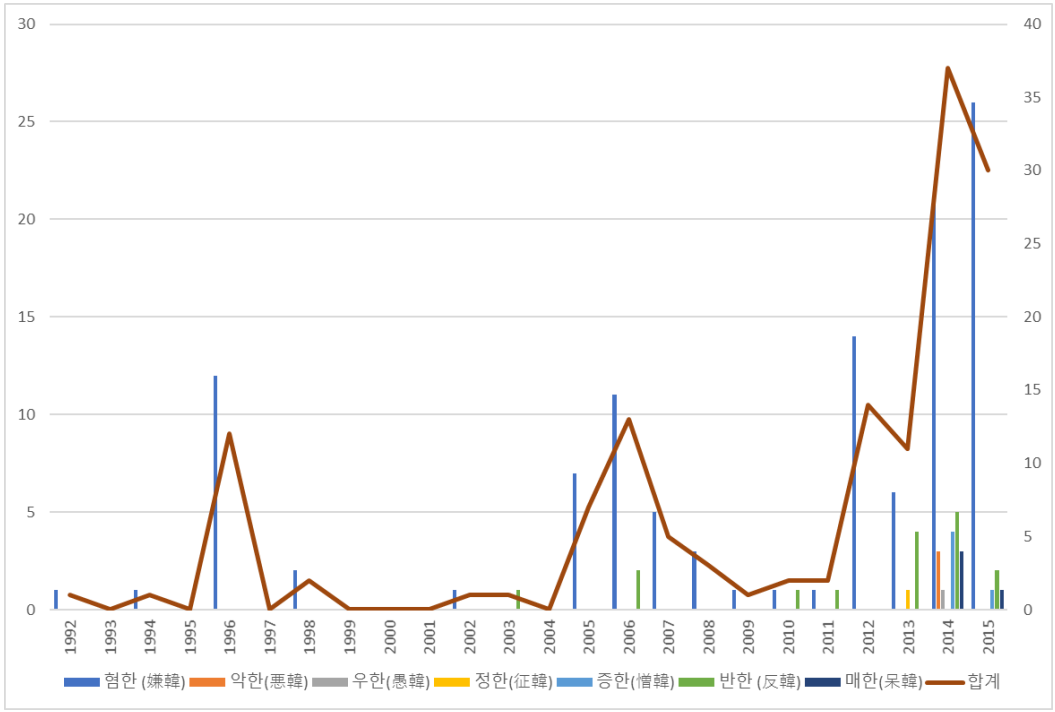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키워드 등장 분포

1-3-2. 잡지별 ·저자별 「혐한(嫌韓)」의 등장

잡지별로 기사를 집계하면 「주간 다이아몬드」가 16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역사통」 13 건, 「사피오」 12 건, 「Will:먼슬리 윌」 11 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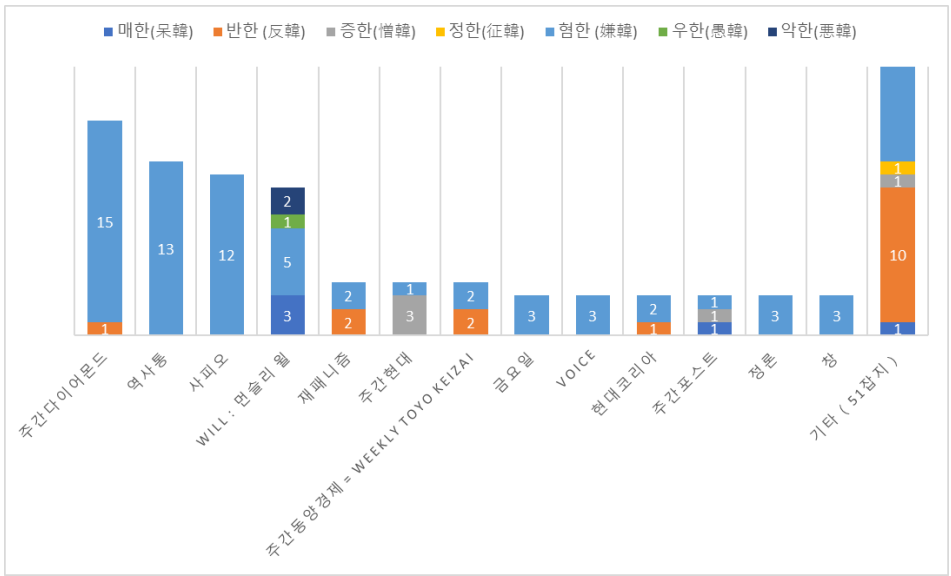


그림 11 잡지별 키워드 등장분포

총 119 명의 저자 중 2 회 이상 등장한 저자는 16 명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이 기사를 집필한 저자는 무로타니 카츠미 (室谷克実) 로 6 건의 기사를 집필했다. 다음은 후루야 쓰네히라 (古谷経衡) 5 건, 야마자키 코타로 (山崎行太郎) 와 야마노샤린 (山野車輪) 이 각각 3 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표 4 은 기사 집필자와 작성 기사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표 4 에 따르면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저자 미정의 기사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저자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3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는, 자사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두번째는 기사를 편집 전문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다. 외주는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서 기사를 납품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의뢰내용에 맞춰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3 번째는 무기명 기사는 기사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할려는 의도가 있다. 또 집필자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기사를 작성하도록 강요 받은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 이유는 기사의 테마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간 다이야몬드'는 "특집 비지니스맨 6000 명에게 질문, 한국과 일본의 대문제"(2015 년 10 월 31 일호)의 기사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다뤘다. 한국은 '재벌'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이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재벌 리스크, 경제의 일본화, 가계(부채), 외환, 통상, 수출, 제조업 위기론, 주가 폭락 등을 들고 있다. 다이야몬드는 냉각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원인은 언론이 제공하고 있고, 미디어가 반일, 혐한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중 영합, PV 지상주의로 언론이 반일 혐한을 증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논조를 펼치고 있는 격월간 잡지 「역사통 [16] 」은,다양한 저자들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2012 년 「총력 특집 혐한 태풍」 시리즈는 총 16 [17] 명의 저자가 집필에 참여 했다. 「역사통」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征韓論)」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의 시점에서

[16] 「역사통」은 왁스 매거진에서 출판되는 격월간 잡지(원칙 짝수달의 9 일 발매). WiLL 별책으로 2009 년(2009 년)3 월 창간. 2010 년(헤세이 22 년)3 월 발매 분(제 5 호)부터 독립 창간과 동시에 간행, 격월간으로 발행. 동아시아 관련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논고를 많이 게재하고 있다.

[17] 16 명은 다음과 같다. 후쿠다 하야루, 엔도 고이치, 가세 히데아키, 오선화, 난고 히로시, 후루야 쓰네히라, 이소무라 야스히코, 미츠하시 다카아키, 마츠키 쿠니토시, 사사키 마스라오, 오나기 센코, 사쿠라이 마코토, 김동화, 겐코츠 타쿠후미, 와타나베 쇼이치, 미야와키 준코.

한일의 역사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일본이 20 세기에 한반도를 식민지화 한 것은 한반도가 서양의 식민지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와타나베 쇼이치 「한국의 영웅은 테러리스트뿐)p30-37).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와 「다케시마 상륙」을 강하게 비난하였다(미야와키 준코 「후쿠자와 유키치 왈 「요마악귀의 지옥국」p 22-29). 게다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고 일본작품을 표절하는 것이 혐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후루야 쓰네히라 「은혜를 원수로 돌려 한류 애니메이션 표절 투성이」p 98-108).

표 4 저자별 등장 빈도

연도/저자	1992	1994	1996	1998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저자 미정			3				2	2		1			1		1	6	15	31
무로타니 카츠미																5	1	6
후루야 쓰네히라															1	4		5
야마노 샤린								2								1		3
야마자키 코타로																3		3
고하리 스스무					1											1		2
이타가키 류타									2									2
나루사와 무네오																2		2
야스다 고이치															1	1		2
카타오카 노부유키																2		2
한영균												2						2
후카다 유스케			2															2
오선화								1						1				2
니시오카 츠토무															1		1	2
쿠로타 가츠히로																	2	2
사토 마사루																2		2
사쿠라이 마코토														1		1		2

총 12 건의 기사를 기재한 「SAPIO[18]」는 1996 년에 9 건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1996 년은 한일 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영토문제가 초점이 된 해이다. 「SAPIO」는「올림픽 민족주의 점점 타오르는

[18] 「SAPIO」는 쇼가쿠칸에서 1987 년 창업 65 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1989 년 5 월 창간, 발행하는 월간 국제 정보지이다.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최신 정보와 일본 국내 정치 문제(교육, 헌법, 음식, 자연 재해, 치안 등), 역사, 군사, 황실,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룸.

민족 간의 증오 「반일 혐한」의 뿌리는 이것이다 대논쟁!」 제하의 시리즈를 게재했다. 재일 한국인, 위안부, 창씨 개명, 민족 사관학교, 반일 문학, 양국의 여론 한일관 국민의식을 역사 문제와 연관 지어서 소개했다.

표 5 상위의 저자의 집필 내용

저자	기사 제목	잡지	연도
무로타니 카즈미	BOOKS & MAGAZINES 「혐한 (嫌韓)」 「악한(悪韓)」 그리고 「매한(呆韓)」에 아무도 믿지 못한 진정한 한국 저자 인터뷰 무로타니 카즈미「매한론(呆韓論)」 (총력대특집 아베 정권에 활기를 넣는다!)	Will:먼슬리 윌	2015
	이 사람에게 듣는다「악한론(悪韓論)」 「매한론(呆韓論)」을 쓴 이유:반일 교육의 세대가 사회를 쥐고 중국과 연계를 도모하는 한국, 기본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고	뉴리더	2014
	「매한론(呆韓論)」과 낫츠리턴편	Will:먼슬리 윌	2014
	한국의 「우한(愚韓)」 「매한(呆韓)」 「애한(哀韓)」 전 기록 (총력특집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실)	Will:먼슬리 윌	2014
후루야 쓰네히라	현지 조사 대만 젊은층의 혐한	Voice	2014
	격렬 혐한 화 대만 : 수렁 한일 관계는 '켄 체나 "일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라 (총력 특집 단말마의 한국 경제)	Voice	2014
	「혐한 (嫌韓)」 「악한(悪韓)」 「매한(呆韓)」 .....에서 마침내 「무한(無韓)」 마음 (특집 한국 철저 추구)	Will:먼슬리 윌	2014
	우익, 왜 혐한 (嫌韓)인지 (총력대특집 한국의 '성노예' 날조를 용서하지 말아라!)	Will:먼슬리 윌	2014
야마노 샤린	혐한의 추천 : 후쿠자와 유키치 바람에 (바티칸 한국)	역사통	2014
	BOOKS & MAGAZINES : interview 베스트셀러의 비밀 야마노 샤린 「혐한류」의 대히트는 한국이 떠든 덕분	Will:먼슬리 윌	2014
	「한류」는 일본 문화의 도용이다 - 「만화 혐한류」 이야말로 진정한 한일 상호 이해에 공헌할 수 있다 야마노 샤린 대담 오선화	보이스	2013
야마자키 코타로	「반한 (反韓)」 「혐한 (嫌韓)」 론은 왜 만연하는지 사상적 쇠퇴 소집 (특집 한일 관계 : 정말 궁금하다)	주간동양경제 = Weekly toyo	2006
	천황 비판까지 시작했다 반감주의자 · 무로타니 카즈미를 반론하다 반한론의 심리와 논리	월간일본	2006

한일관계를 다루는 잡지 기사는 한일 관계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 혐한 기사는 역사, 경제, 정치, 미디어, 문화, 여론, 국민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대립 구조로 설정한 편향된 보도가 많았다. 기사의 제목은 보수적인 독자를 의식한 자극적인 표현이 많았다. 표 5 는 혐한기사의 작성 건수가 많은 저자들의 기사를 타이틀, 잡지,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무로타니(2013)은 저서 '매한론'(산케이신문 출판)을 계기로 일본내 반한감정을「의한(疑韓)→ 혐한(嫌韓)→ 반한(反韓)→ 노한(怒韓)→ 매한(呆韓)→ 소한(笑韓)→ 망한(忘韓)」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후루야는 「무한(無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반한의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만화 혐한론의 저자 야마노(2005)는 「혐한(嫌韓)」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마자키는 반감 감정을 학문과 정치의 영역에까지 연관짓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편협한 사고와 반한 론의 이론과 논리에 대한 반론을 언급하였다.

2 장 혐한 출판 미디어의 현황과 실태

2-1 조사방법

표 1 에 표시된 바와 같이 본장에서는 혐한 서적을 분석했다. 분석은 혐한 서적을 디지털화해서 클라우드에 보존한 뒤 2 명의 코더가 분석했다. 분석은 서베이 전문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유료의 surveyMonkey 서비스를 이용했다. 분석은 2 명의 코더가 무작위로 선택한 10 권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비교했다.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통일성을 높였다.

2-2. 분석결과

그림 12 에 나타난바와 같이 2005 년 이후에 발행된 혐한서적은 205 권이다. 본 연구는 혐한이라는 키워드가 일본의 신문에 등장한 1988 년부터 출판된 서적을 수집했다. 그렇지만, 편의상 분석은 2005 년 이후에 출판된 서적에 한정했다. 이는 그림 1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80% 이상의 서적이 2005 년 이후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즉 혐한이 일본 사회에서 표면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05 년 이후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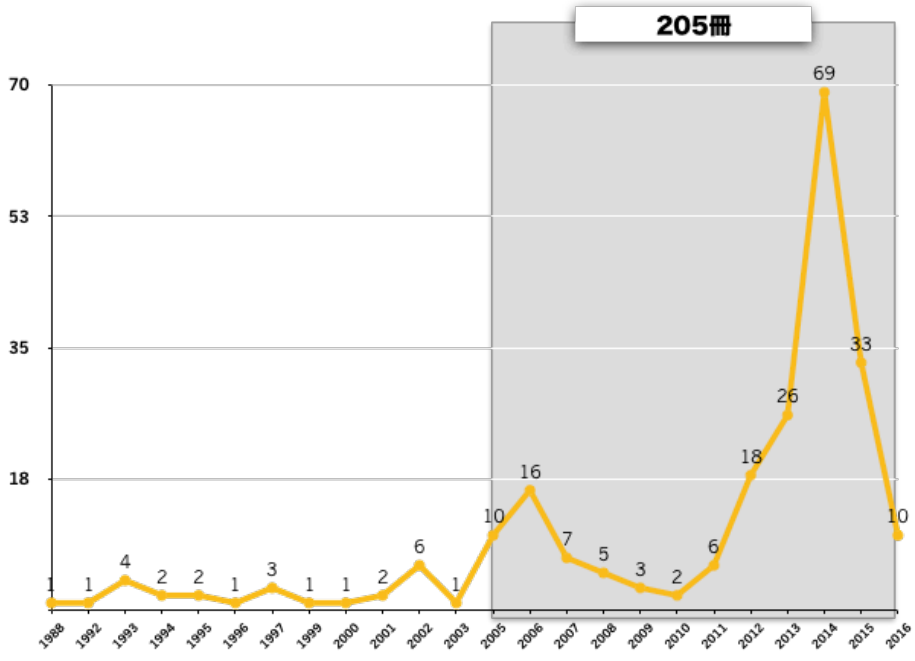


그림 12 혐한 서적의 출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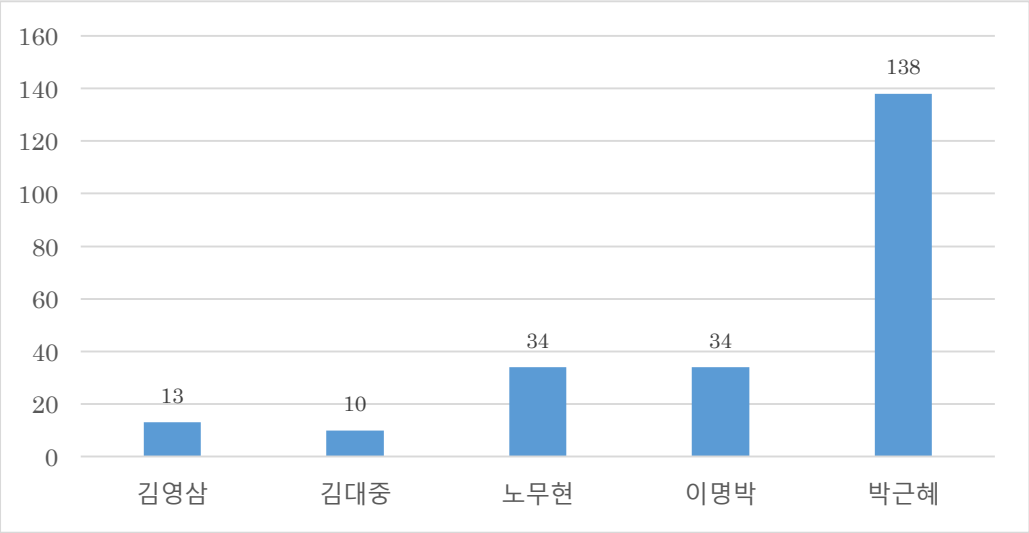


그림 13 정권별 혐한 서적의 출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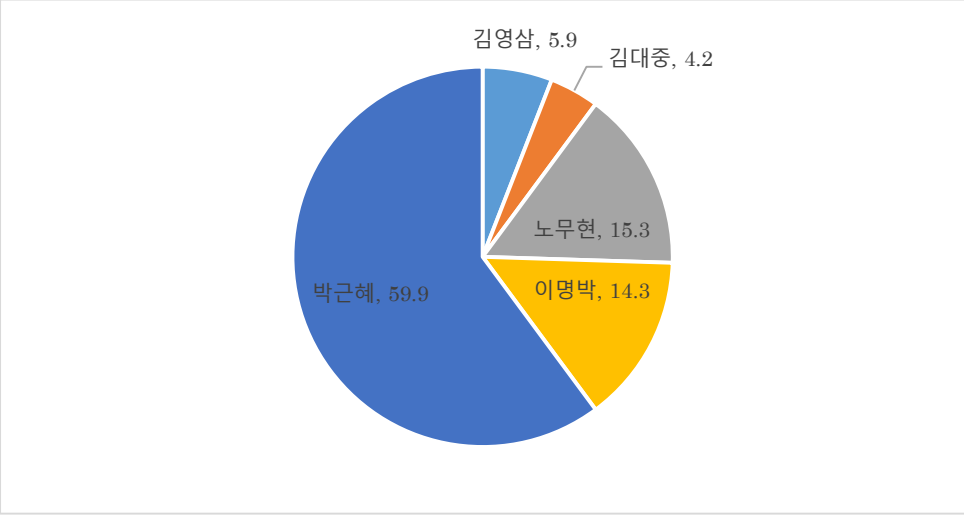


그림 14 혐한 서적의 정권별 비율

혐한서적의 출판 경향을 한국의 정권별로 집계한 것이 그림 13 이다. 혐한 서적의 출판은 노무현 정부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때에 가장 많았다. 이런 경향은 2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012 년 8 월 10 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것이 일본의 혐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미디어는 독도 상륙보다는 14 일에 이 전 대통령의 일왕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대통령은 8 월 14 일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의 한국 교원대학

방문에서 독도방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에서 “일왕이 통념의 석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것이라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중략] 한국에 오고 싶으면 독립운동가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사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2012 년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마지막 해라는 것이다. 12 월의 대통령 선거가 실기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비판은 다음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만 했다.

2-2-1 출판사

합계 55 군데의 출판사가 혐한 서적을 출판했다. 그림 15 는 혐한서적의 출판추이와 출판사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는 2 가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혐한 서적의 출판경향과 혐한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 숫자는 상관관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출판붐이 높아질수록 한 개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혐한 서적이 많아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5 년에는 10 개의 출판사에서 10 권을 출판했다. 한 개 출판사당 한 권을 출판했다. 2012 년에는 18 권을 10 개 출판사가 출판해서 출판사당 평균 1.8 권을 출판한 결과이다. 2013 년에는 26 권을 16 개 출판사가 출판해서 평균 1.6 권, 2014 년에는 69 권을 33 개 출판사가 출판해서 평균 2.1 권, 2015 년에는 33 권을 21 개 출판사가 출판해서 평균 1.5 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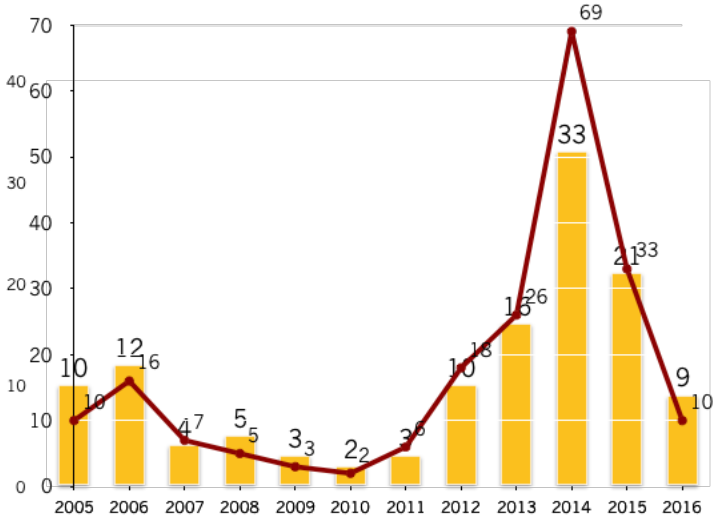


그림 15 혐한서적의 추이와 출판사

출판사가 혐한 서적을 어떻게 출판했는가, 혐한 서적의 출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혐한 서적 출판사와 출판년도를 조사해서 특징을 살펴봤다. 표 6 은 혐한

서적을 출판한 상위 10 위 출판사를 집계한 결과이다. 표에 따르면 혐한 서적을 가장 많이 출판한 곳은 다카라지마(宝島社)사로 합계 20 권을 출판했다. 2 위는 16 권을 출판한 신유샤(晋遊舎), 3 위는 15 권을 출판한 도쿠마서점(徳間書店), 4 위는 14 권을 출판한 후소샤, 5 위는 13 권을 출판한 와쿠샤이다. 상위 5 위에서 도쿠마 서점 이외의 출판사는 2005 년 이후에 혐한 서적을 출판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카라지마샤는 2014 년 이후에 11 권을 출판했고, 도쿠마 서점도 2012 년에서 2014 년까지 11 권을 출판했다. 후쇼샤는 2013 년부터 2015 년에 걸쳐서 11 권을 출판했다. 와쿠샤는 2012 년에서 2015 년까지 13 권을 출판했다. 신유샤는 2005 년에서 2011 년까지 12 권을 발행했다.

표 6 혐한 서적의 출판사 및 출판 건수

순위	출판사명	혐한 서적 건수
1	**다카라지마**(宝島社)	20
2	**신유샤**(晋遊舎)	16
3	**후소샤**(扶桑社)	14
4	**와쿠**(ワック)	13
4	**도쿠마쇼덴**(徳間書店)	13
5	PHP 研究所	12
6	祥伝社	8
	小学館	8
7	アイバス出版	6
	青林堂	6
	ビジネス社	6
	彩図社	6
8	文藝春秋	5
9	イースト・プレス	4
	産経新聞出版	4
	悟空出版	4
	新潮社	3
	ベストセラーズ	3
10	海竜社	3
	飛鳥新社	3
	サイゾー	3
	その他	41
	合計	205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혐한 분위기가 높아질수록 주요 출판사들도 출판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젠준쿠도 서점이 발표한 2015 년도 출판사별 매출액 순위를 살펴보면, 다카라지마샤는 매출액 순위 11 위, 후소샤는 69 위, 도쿠마서점은

30 위이다. 6 위의 쇼가큐간은 출판사 매출순위 4 위다. 8 위의 분게이순주샤(文藝春秋)는 매출순위 6 위이다. 쇼덴샤(祥伝社)는 49 위, 신쵸샤(新潮社)는 5 위, PHP 연구소는 12 위이다. 매출액 순위 100 위 안에 등록되어 있는 출판사 일수록 2011 년 이후에 출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사회의 혐한 무드에 이들 출판사들도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2-2-2 저자

혐한 서적의 저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저자가 한 명인 경우는 79.6%, 2 명인 경우는 12.5%, 3 명은 4.6%이다. 6 명 이상이 집필한 경우는 1.3%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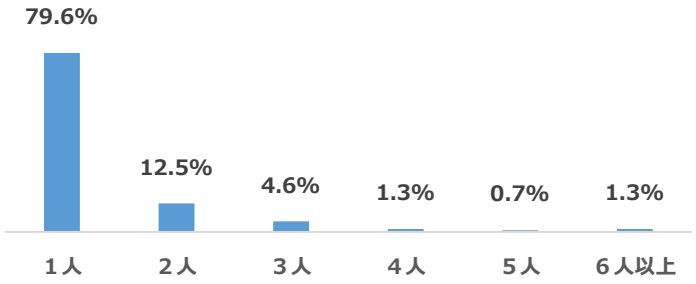


그림 16 혐한 서적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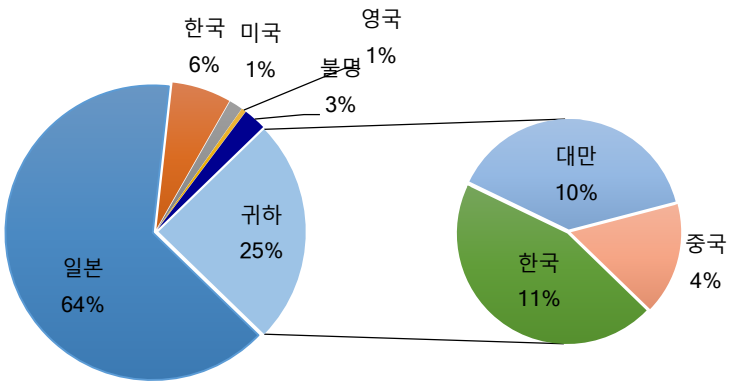


그림 17 혐한 서적의 저자의 국적

혐한 서적의 저자는 일본인이 많았다. 분석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저자에 대해서는 원래의 국적을 조사하는 항목을 설정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조사했다. 그림 16 은 저자의 국적을 비율로 나타냈다. 그림 1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순수한 일본인 저자는 64%, 이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비율을 더하면 일본 국적자는 89%에 이른다. 25%의 일본 국적 취득자의 원래 국적자를 보면 25%중에서 11%가 한국, 대만이 10%, 중국이 4%로 되어 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대만, 중국의 3 개 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저자로서는 한국인이 6%, 미국인과 영국인이 각각 1%, 국적불명자가 3%이다 국적불명은 저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저자 소개에 국적에 관한 정보가 게재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다.

2-2-3 출판내용/형태

혐한 서적이 취급하고 있는 테마는 그림 18 와 같다. 취급하고 있는 테마는 복수 선택했다. 그림 17 에 따르면 혐한 서적의 94.1%가 한국 정치를 테마로 삼고 있다. 그 이외에 역사 63.8%, 사회문제 44.7%로 나타났다. 문화(27.6%)와 경제(26.3%)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한일간에 상호 교류가 많은 문화와 경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혐한 서적의 테마로 다뤄지는 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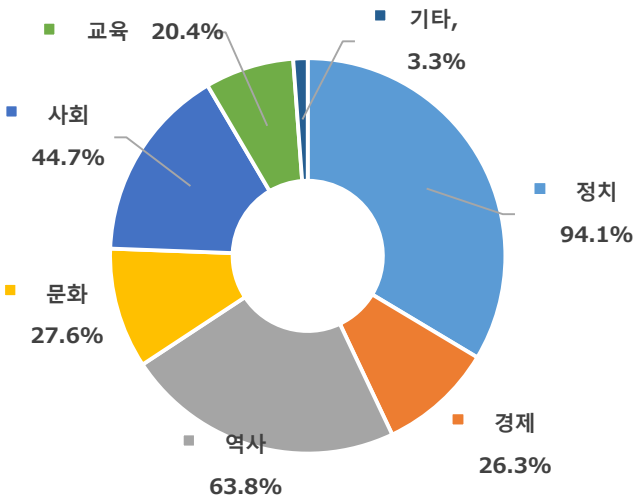


그림 18 혐한 서적의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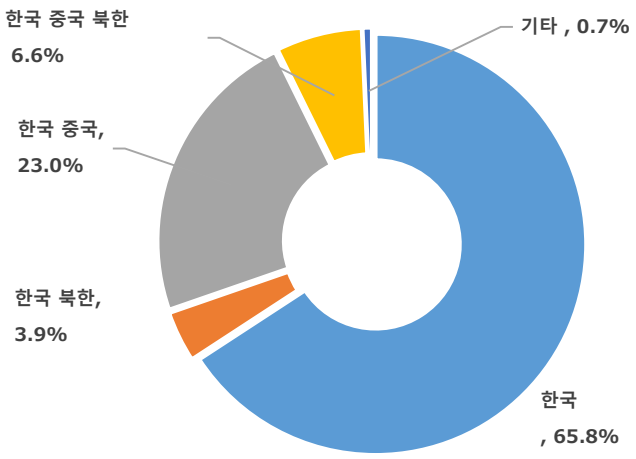


그림 19 혐한 서적이 다루는 국가

혐한 서적은 단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19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이외에도 중국, 북한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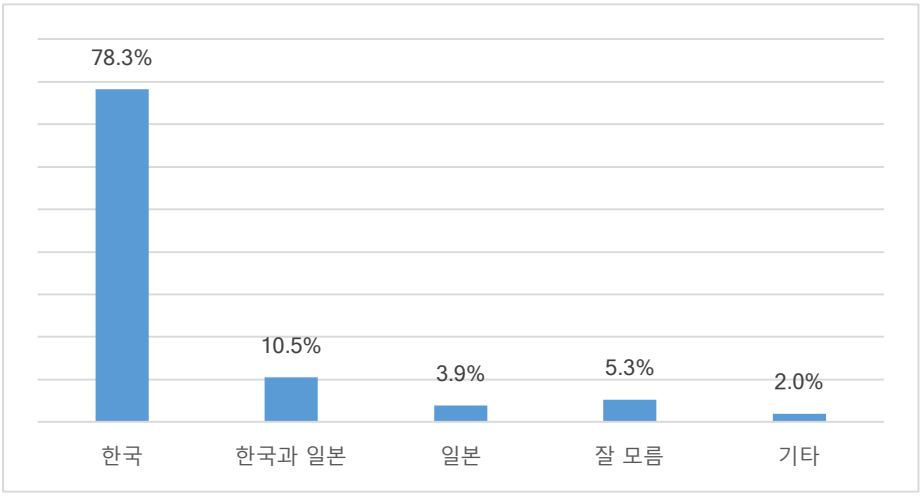


그림 20 혐한 서적의 비판 대상

혐한 서적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 중에는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비론적인 혐한 서적도 있었다. 한일 양국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没落する反日国家の正体』(ビジネス社)”『日韓”円満"断交はいかが? 女性キャスターかが見た慰安婦問題の真実』(ワニブックス)”『も う”無韓心でいい』(ワ

ック)”『悪韓論 vs 悪日論』(双葉社)과 같은 서적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들면 『没落する反日国家の正体』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일 프로파간다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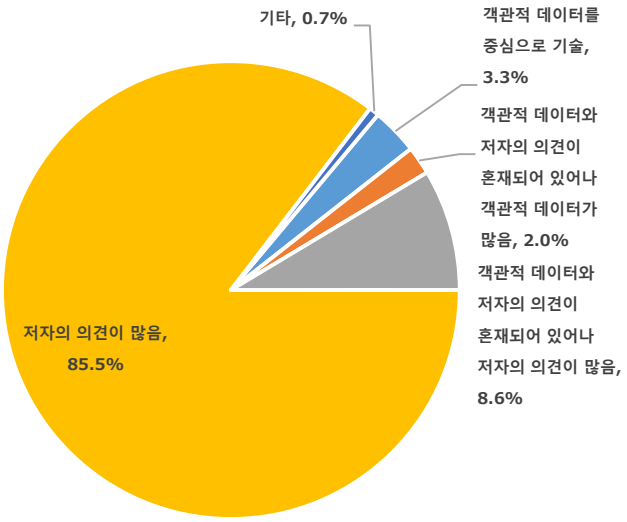


그림 21 혐한 서적의 기술 방법

일부 서적에서는 양국의 공존을 제시하기도 했다. 『韓国人の癇癪日本人の微笑み』(小学館)에서는 반일 혐한은 비생산적이고 바보스러운 행위라면서 양자를 극단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笑日韓論』(フォレスト出版)은 혐한 서적과 반일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자신들을 위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책에서는 한류는 한일관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한류팬은 한국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류도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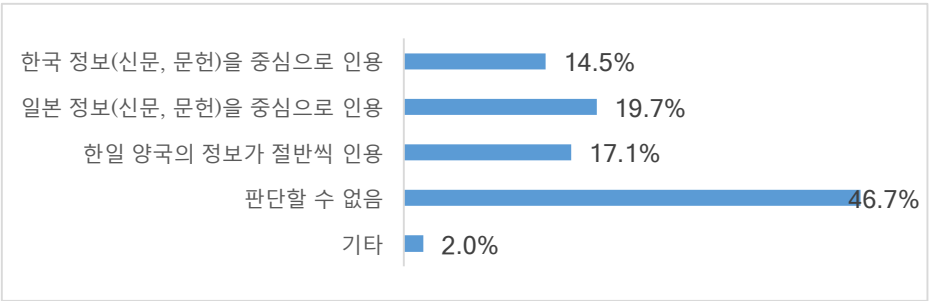


그림 22 혐한 서적의 정보원

그림 22 은 혐한 서적의 정보원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혐한 서적은 한국측 정보(14.5%)보다는 일본측 정보(19.7%)를 인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일 양국의 정보를 동시에 인용한 비율은 17.1%에 달했다. 어느쪽 정보를 인용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혐한 서적이 문제 삼고 있는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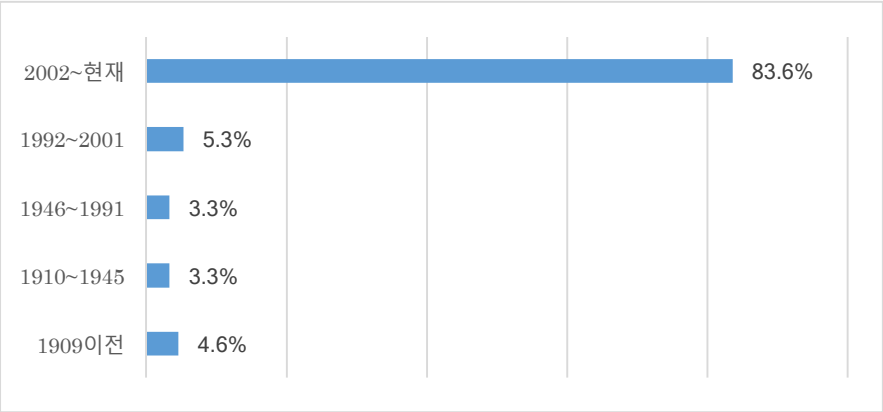


그림 23 혐한 서적이 다루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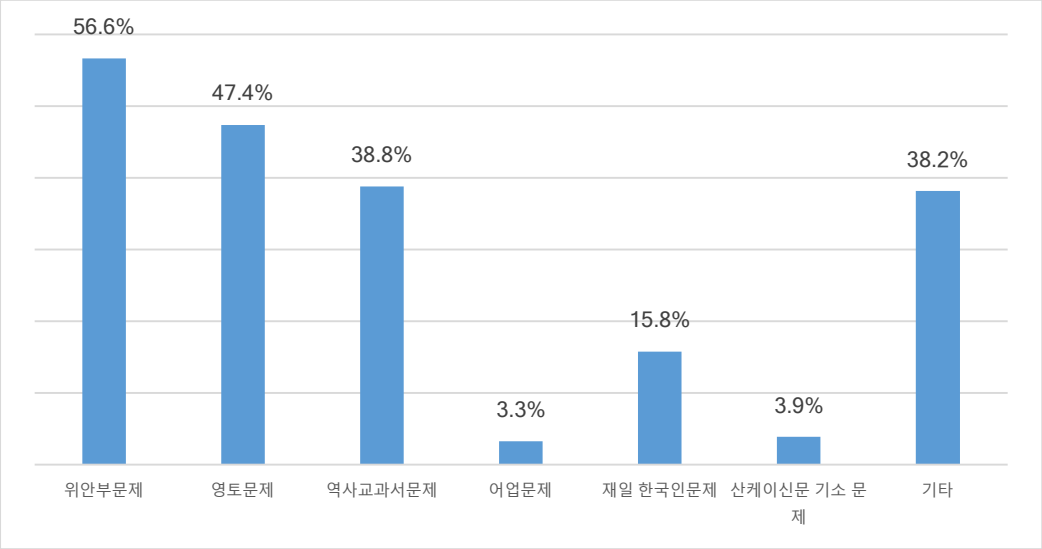


그림 24 현한 서적이 다루는 쟁점

그림 23 는 혐한 서적이 다루고 있는 시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혐한 서적이 문제삼고 있는 시기는 2002 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2005 년에 발행된 '만화 혐한류'는 2002 년에 한일이 공동 개최한 한일 월드컵이 혐한 무드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혐한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1992 년부터 2002 년까지의 시기를 다룬 혐한 서적은 5.3%에 불과했다. 1946 년부터 1991 년까지의 시기는 3.3%, 1910 년부터 1945 년까지는 3.3%에 지나지 않았다. 1910 년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비율도 4.6%에 불과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혐한 서적이 문제시 하고 있는 시기는 주로 2002 년의 시기이며 일본내에서 한류붐이 일어난 시기와 중복된다. 한류붐이 혐한 무드를 자극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분석할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빌려서 발표하고자 한다.

그림 24 은 혐한 서적이 다루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가 56.5%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영토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재일동포 인권문제와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기소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다. 그 이외의 쟁점으로는 한국 경제, 한국 국내 문제, 야스쿠니 폭발 미수 문제, 일본 국내의 반일 언론(아사히를 지칭함),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인에 의한 베트남인 학살 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2-3 고찰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혐한, 혐중 서적이나 혐한 혐중 기사를 접한 적인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13%에 달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18%, 여성의 9%가 혐한, 혐중 텍스트를 접했다고 대답해 남성의 비율이 높다. 혐한 혐중 서적이나 기사를 읽은 사람의 48%가 한국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남성의 44%, 여성은 55%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향은 여성이 더 높았다. 이들 텍스트는 한국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혐한 무드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 중국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49%)고 응답했다. 또 3 명중 1 명은 “한국 중국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30%)고 응답했다.

불황으로 힘들어 하는 출판업계로서는 확실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은 혐한 서적의 출판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팔리기만 한다면 ‘혐한 서적이라도 문제없다’라는 풍조가 출판계에 퍼져있는지 모르겠다. 출판사의 규모가 적을수록 그런 유혹에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예측했지만, 혐한 서적을 10 권 이상 발행한 곳 중에서는 대형 출판사들도 적지 않았다.

혐한 서적은 2005 년 이후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혐한은 한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국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단지 지금과 같은 혐한 무드는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겠다. 혐한 무드가 지금과 같은 실체성을 가지고, 혐한 운동자들이 새로운 사상을 퍼트렸다고 자부할 정도가 되면 이를 유지할려는 관성이 나타난다(마이니치 2014 년 7 월 10 일).

이로 인해 혐한 무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점에서 혐한 서적을 쌓아 놓고 판매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사회의 저변에 혐한 의식이 축적되어 가는 것은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에 혐한 서적에 대한 소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SNS 등과 같이 인터넷에는 혐한 서적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파편화 되어 있던 배타주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들이 서로를 인지하게 됨으로서, 혐한주의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혐한과 같은 배타주의 움직임이 비즈니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혐한 무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 3 장 혐한 의식의 조사

3-1 조사의 개요·목적

3-1-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혐한서적에 접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의식, 그리고 행동을 밝히고, 어떠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혐한 경향이 강한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2. 조사의 설계

조사대상	혐한 서적 및 기사를 읽은 경험이 있는 일본의 성인 남여
조사규모	1,000 人
조사오차	95% 신뢰구간 ±3.1%
조사방법	온라인 서베이 (웹페이지에 응답자가 직접 입력)
표본설계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연령별 남녀비로 구성
조사기간	2016 년 5 월 2 일~ 4 일
조사기간	GMO 리서치

3-1-3. 설문의 구성과 분석방법

1)설문의 구성

혐한 의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혐한 감정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류의 보급과 김대중 정권 이후의 양호한 한일관계로 인해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숫자는 2012 년까지 증가했다[19]. 2012 년에 양국을 방문한 숫자의 합계는 700 만명을 넘어 국교를 맺은 1965 년의 방문자수가 연간 1 만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700 배 이상 증가했다. 방한자수의 증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는 일본인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한자수의 증가는 한국을 체험하는 일본인을 늘리고 이것이 혐한 텍스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한 서적이나 잡지 기사에서 한국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제 1 장의 혐한 관련 신문보도 잡지의 분석에서 한국에서 일본인을 배척하는 언동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기술은 한 건도

[19] 한국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숫자는 2006 년 233 만명(방한 한국인의 38.0%)로 2012 년 2012 년에는 351 만명(동 31.6%)까지 증가했다.

보고 되지 않았다. 제 2 장의 혐한 서적의 분석에서도 한국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기술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경험과 이해 부족이 혐한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 사회 정치 등의 국내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혐한”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혐한”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혐한”인식을 가진 일본인들은 인터넷 헤비 유저가 아닐까 추측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한국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혐한” 의 경향이 강하다.

혐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넷우익/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와 겹친다. 재특회는 2006 년 ‘주권회복을 바라는 모임’의 니시무라(西村修平)가 주도한 ‘고노담화 백지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에서 시작된다(미야기 2016).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철폐해서 재정을 건전화 하고 이를 일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냉전 후 좌익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濱野 2011). 보수적인 만화가로 알려진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넷우익은 현재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들은 ‘민주당 정권으로 붕괴된 대외관계의 시정’, ‘신속한 재해 부흥과 경제재생’, ‘미디어 건전화’, ‘중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 교섭’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전세계적인 우익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에서 우익적인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민과 실업률의 증가와 연동되어 있다. 이민의 증가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배타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바야시는 넷우익을 소득이 200 만엔 이하의 하층민이라고 표현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이외에도 넷우익은 ①저학력, ②저소득층, ③사회적인 하층민, ④좋지 않은 외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설 2.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록” 혐한” 의 경향이 강하다.

가설 3.인터넷의 헤비 유저 일 수록” 혐한” 의 경향이 강하다.

본 가설은 “혐한”의 정보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애국주의와 넷우익 등 배타주의의 움직임은 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난다. 2008 년부터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풍자화는 넷우익의 특성의 하나로 ‘코어 인터넷 유저’라고 표현하고

있다. 넷우익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루타니의 연구에 의하면, 피조사자의 70%가 자신은 넷우익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넷우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93%가 그렇다고 답했다. 넷우익의 공통점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하야시 2013). 또 혐한의 실체와 정도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묻는 질문을 준비 했다. 구체적인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의 정도를 묻는 질문/ 혐한 행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

혐한 인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 한국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

인터넷 이용에 대해 묻는 질문/ 정치적 유효성을 묻는 질문

응답자의 속성에 관한 질문(학력 , 결혼 여부 , 직업, 연봉 , 연령, 성별)

2)분석 방법

분석은 설문에 대한 단순 집계와 가설 검증을 위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중회귀분석은 혐한 감정,혐한 행동,혐한 인식에 관계된 설문을 목적변수로 설정하고,한국과 관련된 경험, 인터넷 이용 시간, 정치적 유효성을 묻는 설문을 설명변수로 설정했다. 분석의 설명변수와 목적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7 독립 변수 와 종속 변수

변수의 종류	변수의 카테고리	내용
종속변수	혐한감정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한류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한국정치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혐한행동	혐한 관련 데모 참가 빈도
	혐한인식	한국인은 화를 잘낸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위안부의 동원에는 강제성이 없었다
		한일합병은 합법적이었다
		재일동포는 우대받고 있다
		재특회의 반한데모의 주장은 옳다
독립변수	1.한국에 대한 경험:한국 방문, 한국인 지인, 한류 2.인터넷 접촉 3.정치에 대한 불만:정치적 유효성 감각,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	

3-1-4. 조사의 진행과 응답자의 구성

응답자의 구성은 표 8 과 같다.

표 8 응답자의 구성

구분		샘플수	퍼센트
전체		1,000	100%
성별	남성	502	성별
	여성	498	49.8%
연령	20～29 세	155	연령
	30～39 세	193	19.3%
	40～49 세	230	23.0%
	50～59 세	194	19.4%
	60～69 세	228	22.8%
결혼여부	기혼	566	결혼여부
	미혼(이혼/사별을 포함)	434	43.4%
학력	중학교	17	학력
	고등학교	205	20.5%
	단기대학	106	10.6%
	대학	510	51.0%
	대학원	62	6.2%
	전문학교	93	9.3%
	공업전문학교	7	0.7%
	기타	0	0.0%
직업	회사원	344	직업
	공무원	30	3.0%
	자영업	120	12.0%
	경영자/임원	19	1.9%
	계약사원/파견사원	50	5.0%
	아르바이트	167	16.7%
	전업주부	243	24.3%
	학생	27	2.7%
연간수입	100 만엔 미만	239	연간수입
	100～200 만엔 미만	118	34.6%
	200～300 만엔 미만	126	23.4%
	300～400 만엔 미만	124	6.3%
거주지	400～500 만엔 미만	96	44.7%
	500～600 만엔 미만	72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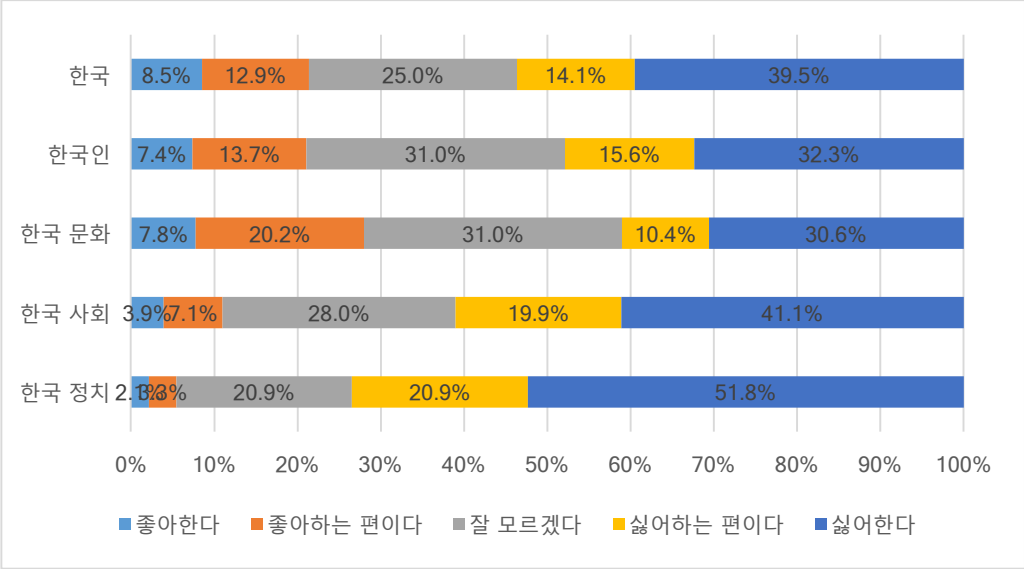
3-2 분석 결과

3-2-1. 한국 전반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한국 사회”·“한국 정치”에 관한 감정의 정도에 관해 물었다(그림 24). 각 항목 중에서 “매우 좋아한다”와 “대체로 좋아한다”를 합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한국 문화”(28.0%)였다. 한편 각 항목 중에서 “매우 싫어한다”와 “대체로 싫어한다”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한국 정치”(72.7%)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문화”(41.0%)와 “한국인”(47.9%)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매우 싫어한다”와 “싫어하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이 50 %를 넘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한국 전반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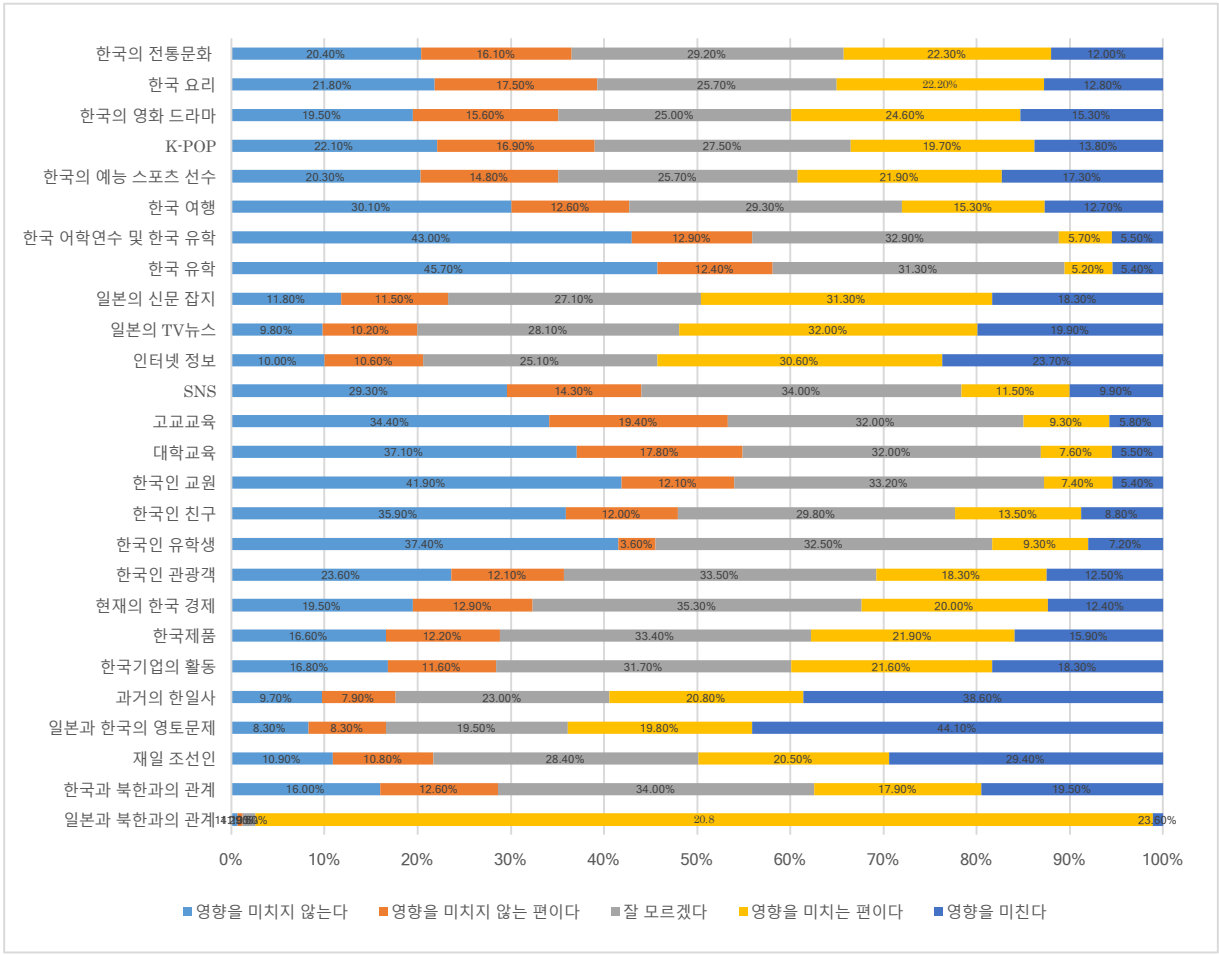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가 그림 25 이다. 그림 26 에 의하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는 “영토 문제”(63.9%),“과거의 한일 관계”(59.4%), “인터넷상의 정보”(54.3%), “일본의 텔레비전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51.9%), “일본 신문이나 잡지”(49.6%)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정보, 일본의 텔레비전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 일본의 신문, 잡지는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국의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39.2%), K-POP(33.5%), 한국 영화와 드라마(39.9%), 한국요리(35.0%), 한국의 전통문화(34.3) 등 한국관련 콘텐츠도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류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한국 ·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 에 영향을 미친 것



3-2-2 혐한 행동의 정도

행동은 의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혐한 의식을 측정할 경우 혐한 행동을 같이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혐한데모 참가정도, 혐한 서적 구입, 혐한 관련 사이트 접촉과 댓글작성, 관련 동영상 업로드 등을 혐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림 27 은 혐한 서적 구입 행동에 대해서 집계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혐한 서적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 권 이상 구입했다는 응답도 6%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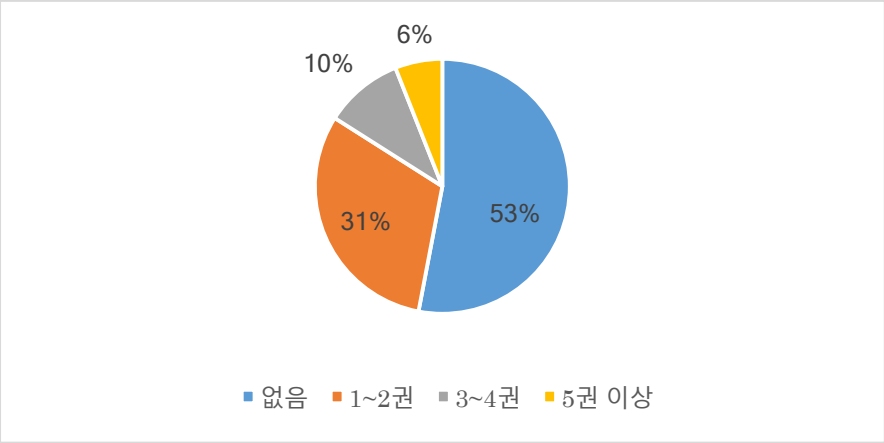


그림 27 혐한 서적의 구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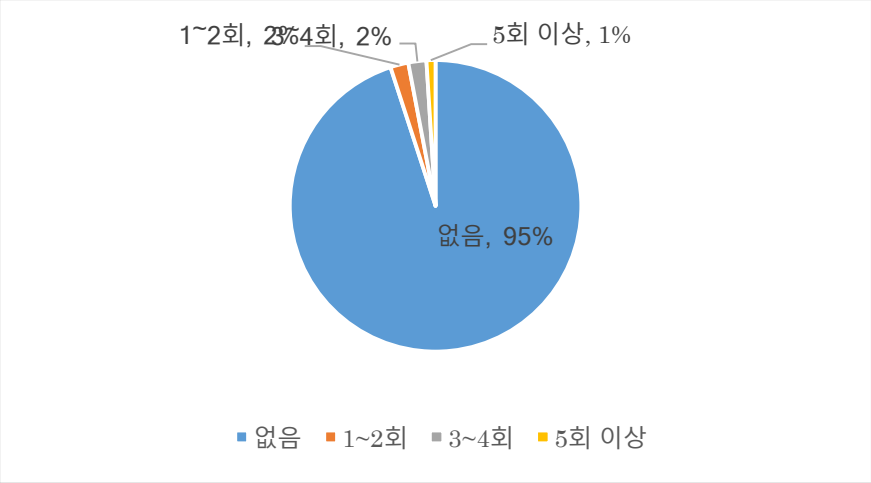


그림 28 혐한 데모 참가 경험

그림 28 은 혐한 데모 참가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28 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인(95%)은 혐한 데모에 참가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1~2 회'정도 혐한 데모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 정도였고, '3~4 회'는 2%, '5 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1%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혐한 데모에 참가한 비율이 5%에 불과하다고 해서, 이 비율을 적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혐한 데모 참가는 혐한 의식의 강약을 나타내는 것 뿐으로 강한 혐한 의사를 보이는 비율이 5%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그림 29 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혐한 행동을 보이는 연령대는 20 대와 30 대의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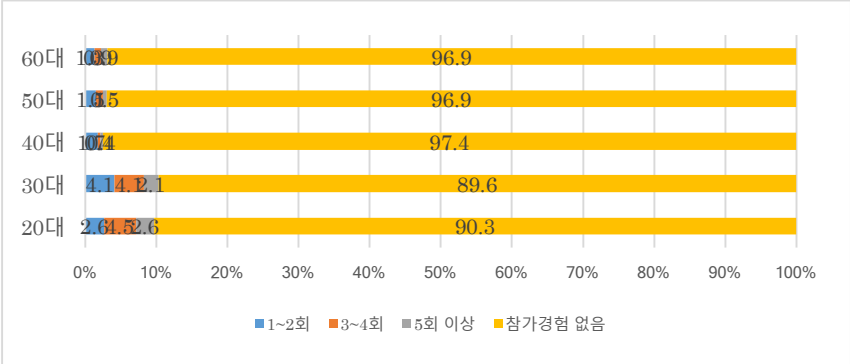


그림 29 연령별 혐한 데모 참가 경험

조사 대상자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혐한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송, 신문, 출판의 순이었다. 혐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는 당초의 예측한 바와 같이 '인터넷'이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혐한감정과 의식을 표현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촉 경험','혐한 관련 사이트에 댓글','혐한 관련 동영상 접촉','혐한 관련 동영상 업로드'의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경험의 빈도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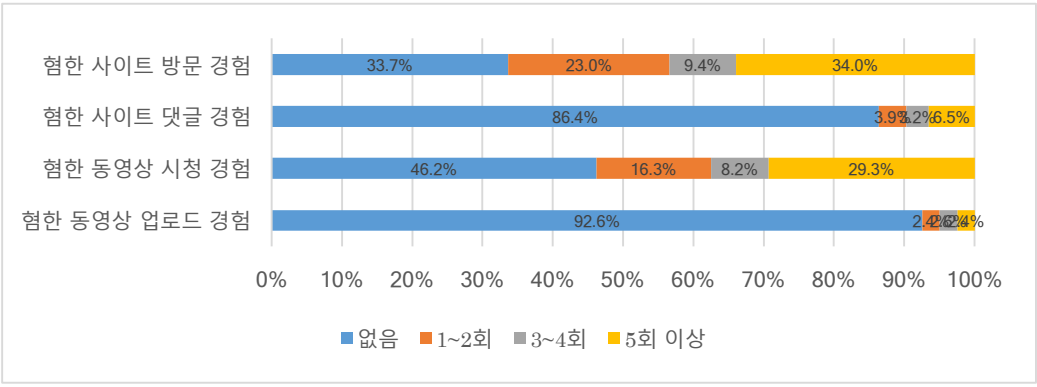


그림 30 혐한 사이트와 동영상 시청, 업로드 경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댓글, 동영상 업로드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혐한 사이트 억세스','동영상 억세스'와 같은 소극적인 행동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혐한 사이트 억세스는 66.3%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5 회 이상 경험 있다'는 응답은 34.0% 였다. 혐한 관련 동영상은 53.8%가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5 회 이상

경험 있다'는 비율은 29.3%였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에 비해서 적다고는 해도 댓글을 단 경험이 있는 비율은 13.6%,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경험도 7.4%가 있다고 답했다.

3-2-3 혐한 인식의 정도

혐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혐한, 반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주장이나 만화 혐한류에 등장하는 한국,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열해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어느쪽이냐 물으면 동의하는 편이다'와 '동의한다'는 응답을 더한 결과를 혐한 주장별로 살펴봤다. 먼저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74.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국인은 자주 화낸다'(66.8%), '재일 코리안은 우대받고 있다'(48.6%), '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이 없었다'(44.9%), '재특회의 반한 데모는 정당하다'(26.6%)로 응답했고, 특히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등 역사 인식과 관련된 항목은 만화 혐한류가 주장하는 내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혐한 서적과 혐한 관련 기사에 관한 일본인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들 서적과 잡지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혐한 서적이)팔리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21.6%)와 '(혐한 서적이)팔리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23.3%)고 응답한 비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이들 서적이나 잡지 기사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48.8%),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44%)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 결과는 이와 같은 현상이 현재의 한일관계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어떤 형태로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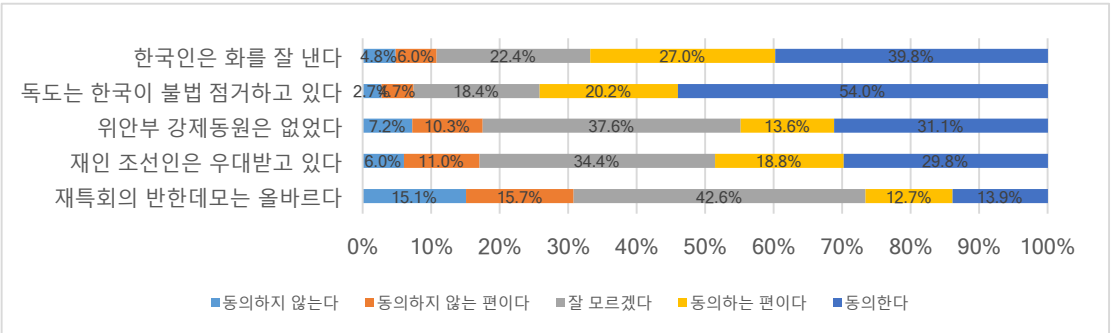


그림 31 혐한 인식의 정도

그림 32 은 혐한 서적과 혐한 관련 기사가 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혐한 서적 및 기사가 읽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낮았다(일본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분출구가 되고 있다(32.8%), 출판업계는 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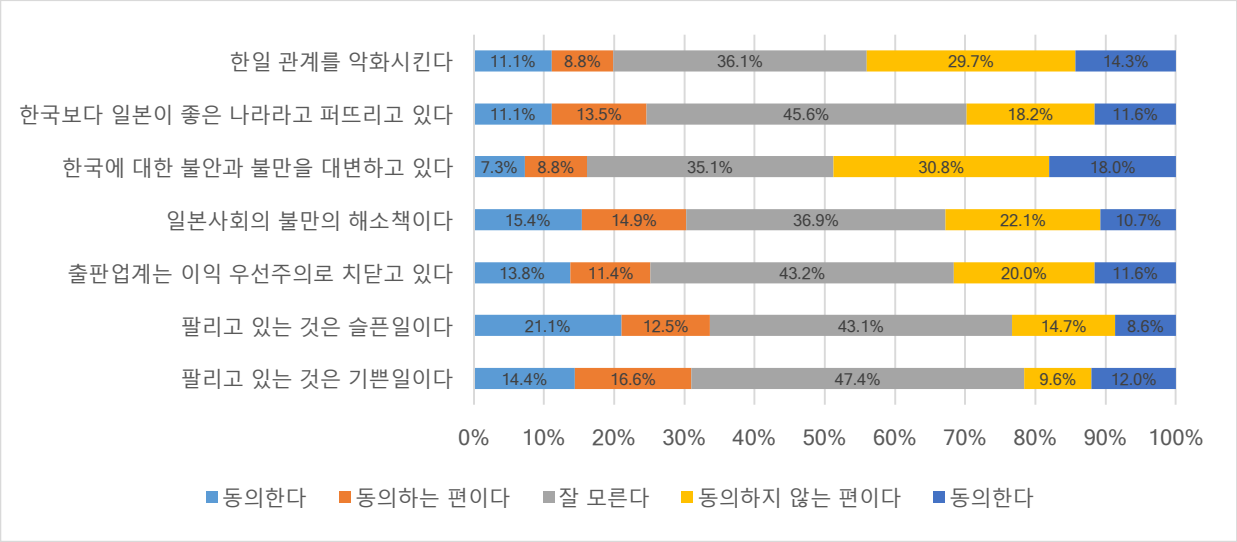


그림 32 혐한 서적 및 혐한 잡지가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

3-3 가설 검증

가설 1 '**한국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혐한"의 경향이 강하다**'에 대해 검증하겠다. 종속변수로서 혐한 이미지와 혐한 의식을 설정했다. 독립변수로서는 한국에 대한 방문경험, 한국인 친구,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 요인 중 경험에 관련된 7 가지 항목을 설정했다.

표 9 는 혐한 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경험은 (한국, 한국인, 한구문화, 한국사회, 한국정치에 대한)혐한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영화/드라마는 한국사회, 한국정치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K-POP 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와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유학은 한국에 대해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9 혐한 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경험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1.168***		1.419***		1.652***		1.308***		1.279***	
한국 방문 경험	0.27***	.260	.202***	.205	.238***	.234	.175***	.197	.126***	.157
한국인 친구	0.137***	.144	.190***	.211	.157***	.168	.124***	.152	.048**	.065
한국의 전통문화	-0.168***	-.163	-.093**	-.095	-.116***	-.114	-.078**	-.089	-.091***	-.114
한국 요리	0.205***	.203	.160***	.167	.184***	.187	.123***	.143	.104***	.134
영화 드라마	0.125**	.125	.089*	.094	.157***	.161	.055	.065	.000	.000
K-POP	0.085	.085	.074	.078	.049	.050	.047	.055	.105**	.136
예능인 스포츠서스	-0.171***	-.175	-.169***	-.181	-.202***	-.211	-.146***	-.175	-.140***	-.186
어학 연수	0.223***	.201	.133*	.126	.087	.080	.137**	.144	.127**	.148
유학	-0.136*	-.122	-.073	-.069	-.079	-.073	-.024	-.026	.015	.017

*** p<0.01; **p<.05; *p<0.1

표 10 혐한의식의 강도와 한국에 대한 경험

	Q1		Q2		Q3		Q4		Q5		Q6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4.240***		4.642***		4.086***		3.942***		3.876***		3.269***	
한국 방문 경험	-.043	-.049	-.057**	-.069	-.070**	-.076	-.085***	-.089	-.070**	-.076	-.040	-0.043
한국인 친구	-.087***	-.107	-.082***	-.109	-.059**	-.070	-.048	-.055	-.106***	-.124	-.128***	-0.15
한국의 전통문화	.161***	.183	.089***	.109	.099**	.108	.089**	.094	.128***	.138	.053	0.057
한국 요리	-.097***	-.114	-.065*	-.081	-.103***	-.115	-.176***	-.190	-.136***	-.151	-.112***	-0.124
영화 드라마	-.008	-.010	-.075*	-.095	-.059	-.066	-.070	-.076	-.058	-.065	-.054	-0.06
K-POP	-.148***	-.174	-.059	-.074	-.046	-.052	-.036	-.039	.041	.046	.079	0.088
예능 스포츠	.106***	.128	.115***	.148	.136***	.157	.143***	.159	.038	.044	-.014	-0.016
어학연수	-.204***	-.217	-.226***	-.257	-.221***	-.224	-.116	-.113	-.202***	-.204	-.110	-0.111
유학	.147**	.156	.132**	.150	.132*	.134	.102	.100	.200***	.202	.187**	0.188

Q1: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 Q2: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Q3: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이 없었다 Q4:한일 합병은 합법적이었다 Q5:재일 조선인은 우대 받고 있다 Q6:재특회의 반한 데모의 주장은 올바르다 대답은 다음과 같다, ①동의하지 않는다 ②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동의하는 편이다 ⑤동의한다

*** p<.01; **p<.05; *p<0.1

표 10은 혐한의식의 강도[20]와 한국에 대한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는 언설는 한국 관련 경험과 강한 관련성이 확인했다. 한국인 친구(B=-.087,p<.01), 한국 요리(B=-.097,p<.01), K-POP (B=-.148,p<.010), 어학(한국어)(B=-.204,p<.01)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 수록, 혐한 언설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K-POP'와 '어학'은 다른 요인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반해서 '유학'(B=.147,p.<00))은 언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체험이 이미지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언설에 대해서는 '한국 방문 경험'(B=-.057,p<.05), '한국인

[20] 혐한의식의 강도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어느정도 동의하는냐로 측정했다. 5개의 시각 중 동의하는 내용이 많을 수록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의식이 강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친구'(B=-.082,p<.01), '한국 요리'(B=-.065,p<.1), '영화 및 드라마'(B=-.075,p<.1), '어학연수' (B=-.226,p<.01) 가 언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언설은 '한국 방문 경험'(B=-.057" p<.00), '한국인 친구'(B=-.082,p<000), '한국의 전통문화(B=.099,p<.05)''한국 요리'(B=-.065" p<.0), '예능/스포츠(B=.136,p<.01)' '영화 및 드라마'(B=-.075" p<.0), '어학연수'(B=-.226" p<.000)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한일합병은 합법적이었다'는 '한국 방문 경험'(B=-.085" p<.01), '한국의 전통문화'(B=.89" p<.05), '한국요리'(B=-1.75" p<.01), '예능/스포츠'(B=1.43" p<.01)이, '재특회 반한 데모의 주장은 정당하다'는 '한국인 친구'(B=-1.28" p<.01), '한국 요리'(B=-.112, p<.01), '유학'(B=.187,p<05)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에 대한 경험은 혐한 이미지와 혐한의식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한국 방문이나 한국인 친구는 혐한 이미지와 비례관계에 있었지만, 혐한의식에 대해서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체험적 경험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혐한 언설에 대한 의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2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록"혐한"의 경향이 강하다**'에 대해 검증하겠다. 표 11 은 혐한 이미지가 일본 사회/일본 정치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일본 사회/정치에 대한 만족도와 혐한 이미지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1 혐한 이미지와 일본 사회에 대한 만족・신뢰도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2.380***		2.281***		2.288***		2.234***		2.089***	
일본 사회에 대한 만족	.021	.017	.003	.003	.029	.024	.027	.025	.020	.021
일본 정치에 대한 만족	-.049	-.041	-.066	-.058	-.092*	-.078	-.026	-.025	.018	.020
국회	-.028	-.022	.011	.009	-.026	-.021	.013	.012	.013	.013
정부	-.108	-.088	-.076	-.065	-.136*	-.113	-.077	-.073	-.039	-.041
지자체	.007	.006	-.017	-.014	.001	.001	.006	..05	-.049	-.050
법원	-.025	-.020	-.015	-.013	.093	.076	-.008	-.008	.025	.026
경찰	-.140**	-.114	-.074	-.063	-.090*	-.075	-.116*	-.111	-.133**	-.140
방송국	.177**	.137	.129*	.105	-.002	-.001	-.001	-.001	.115***	.115
신문사	.344***	.274	.296***	.248	.402***	.327	.381***	.354	.213***	.219
가족/친족	-.237***	-.188	***	-.143	-.108**	-.088	-.239***	-.221	-.272***	-.280
이웃 자치회 등	.074	.054	.096*	.073	.071	.053	.085*	.072	.098**	.092
직장	.108*	.077	.065	.049	.040	.029	.051	.042	.055	.051

*** p<.01; **<p..05; *p<0.1

표 12 는 일본 사회/정치에 대한 만족도와 혐한데모 참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결과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일본 정치에 만족할수록 혐한데모에 참가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국회'(B=-.047, p<.1), '지자체'(B=-.054,p<.05), '가족/친족'(B=-.092,p<.01) 과 같은 일본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혐한데모 참가와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표 12 혐한데모 참가와 일본 사회에 대한 만족/신뢰도

	혐한 데모 참가	
	B	Beta
(Constant)	1.430***	
일본 사회에 대한 만족	-.039**	-.096
일본 정치에 대한 만족	.068***	.169
국회	-.047*	-.111
정부(중앙부처)	.045	.109
지자체(광역자치체, 기초단체)	-.054**	-.126
법원	-.028	-.066
경찰	.010	.024
방송국	.025	.058
신문사	.037	.089
가족/친족	-.092***	-.217
이웃 자치회 등	-.001	-.002
직장	.010	.022

*** p<0.01; **p<.05; *p<0.1

표 13 혐한의식의 강도와 일본사회에 대한 만족/신뢰도

	Q1		Q2		Q3		Q4		Q5		Q6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3.394***		3.419***		3.363***		3.006***		3.547***		2.930***	
일본 사회에 대한 만족	-.003	-.003	.022	.022	-.041	-.038	-.010	-.009	-.006	-.005	.061	.055
일본 정치에 대한 만족	-.008	-.008	-.086***	-.091	.122***	.115	.095	.086	.049	.045	.046	.043
국회	.055	.051	.042	.042	.047	.042	.077	.066	.002	.002	.055	.048
정부(중앙부처)	-.004	-.004	.088	.091	.186***	.170	.151***	.134	.129	.118	.098	.089
지자체	.028	.026	.047	.046	-.055	-.049	-.027	-.023	.035	.031	-.006	-.006
법원	.053	.050	.030	.030	-.005	-.005	-.081	-.070	-.037	-.033	-.150***	-.133
경찰	.100***	.096	.110***	.113	.109***	.100	.107	.095	.024	.021	.007	.006
방송국	-.036	-.033	-.048	-.047	-.093	-.081	.041	.034	-.021	-.018	.092	.079
신문사	-.305***	-.286	-.247***	-.248	-.281***	-.253	-.345***	-.298	-.296***	-.264	-.241***	-.214
가족/친족	.249***	.233	.259	.259	.194***	.174	.154***	.133	.158***	.141	.038	.033
이웃 자치회 등	-.092	-.079	-.074	-.068	-.082	-.067	-.014	-.011	-.053	-.043	-.053	-.043
직장	.004	.004	-.014	-.013	-.058	-.046	-.023	-.018	-.055	-.044	.068	.054

Q1: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Q2: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Q3: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이 없었다 Q4:한일 합병은 합법적이었다 Q5:재일조선인은 우대 받고 있다 Q6:재특회의 반한데모의 주장은 올바르다 대답은 다음과 같다, ①동의하지 않는다 ②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동의하는 편이다 ⑤동의한다

*** p<0.01; **p<.05; *p<0.1

표 13 은 혐한의식의 강도와 정치적 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본 사회에 대한 만족와 혐한 의식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일본 정치에 대한 만족도는 '영토문제', '위안부문제'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즉 일본 정치에 만족하지 않을 수록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언설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일본 정치에 만족할 수록 (아베 정권을 지지할 수록)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일본 정치에 만족할 수록(아베 정권을 지지할 수록), 일본 사회에 불만이 많을 수록 혐한 데모 참가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혐한 의식에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만족와 '영토문제', '위안부 문제'사이에만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혐한 이미지와 혐한 데모 참가는 일본사회/정치에 대한 만족과 관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혐한 의식에서는 영토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혐한 이미지와 인터넷 이용시간

	한국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2.585***		2.857***		2.922***		2.377***		2.023***	
인터넷 이용 시간	-.042*	-.058	-.072***	-.106	-.054**	-.077	-.048**	-.078	-.035**	-.064

*** p<0.01; **p<.05; *p<0.1

표 15 혐한의식 강도와 인터넷 이용시간

	Q1		Q2		Q3		Q4		Q5		Q6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	3.612***		3.911***		3.542***		3.452***		3.384***		2.818***	
인터넷 이용 시간	.058***	.095	.052***	.092	.036	.056	.012	.018	.033	.051	.025	.038

Q1: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Q2: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Q3: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이 없었다 Q4:한일 합병은 합법적이었다 Q5:재일 조선인은 우대 받고 있다 Q6:재특회의 반한데모의 주장은 올바르다 대답은 다음과 같다, ①동의하지 않는다 ②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③잘 모르겠다 ④동의하는 편이다 ⑤동의한다

*** p<0.01; **p<.05; *p<0.1

다음으로 <가설 3> '**인터넷의 헤비 유저 일 수록 혐한의 경향이 강하다**'를 검증하겠다. 표 14 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시간은 혐한 이미지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사회, 한국 정치에 대한 혐한 이미지가 강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B=-.054, p<.00)과 한국사회(B=-.048,

p<.0)와의 관련성이 강했다.

표 15 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혐한 의식의 강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시간은 '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B=.058, p<.01),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B=.052, p<.01)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인터넷 이용시간은 혐한 이미지와 반비례 관계였지만, 혐한 의식에서는 일부에서만 관련성이 나타났다.

3-4 고찰

본 장에서는 혐한 서적과 혐한 기사 등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텍스트를 접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당초 유명한 온라인 조사 회사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회사로부터 패널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항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당했다. 해당 조사 회사는 인터넷 설문지의 문항을 스냅숏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확산시킨다면 회사가 입을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혐한이 민감한 테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응답자의 크레임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혐한 무드의 실체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이런 경험을 포함해서 본 조사의 의미는 적지 않다.

혐한 서적이나 혐한 기사를 접한 비율이 13%인 것을 봐도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독자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혐한 서적을 접한 사람은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보다는 비호감을 가제게 되는 경향이 크다. 한국에 대해서도 '만화 혐한류'나 재특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혐한 데모에 참가하는 적극적인 사람은 적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국 방문 경험' '한국인 친구' '한류' 등이 혐한을 약화시키는 가능성이 큰 요인이라는 것이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을 수록 혐한 이미지, 감정, 태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대한 실제 체험이 혐한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적/문화적 교류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혐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혐한 데모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들어 내고 있고 데모 참가자들은 언론에 대한 반발로 혐한 행동을 강화 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 언론이 한국에 우호적인 것에 대한 반발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일본 언론의 논조가 실제로 친한적인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혐한 이미지는 영토문제, 역사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정보의 대부분이 인터넷 방송뉴스 정보 프로그램, 신문 잡지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도가 높은 20~30 대의 혐한데모 참가율이 높은 것은 정보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젊은 층은 '혐한 관련 동영상' '혐한 사이트 접촉'경험은 많지만,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을 다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험과 혐한과의 관련성은 검증되었다. 혐한은 일본 사회, 정치에 대한 불만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일본 정치에 대한 불만은 혐한의식의 강도와 관련되어 있다. 또 인터넷 이용시간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혐한 의식은 '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부분에 있어서 지지되었다.

4 장 혐한 출판물의 제작 메카니즘

본 장은 혐한 서적의 출판 프로세스를 출판계 내부로부터 분석한다. 출판계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혐한 서적을 제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일본에서 혐한 혐중 서적이 서점에 진열되는 것은 책이 팔리기 때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서적 유통업체 '도한'의 조사에서 2014 년 연간 베스트셀러 '신서, 논픽션' 분에서 가장 많이 팔린책은 '매한론'(呆韓論)이다. 해당 순위의 7 위는 '한국인의 취한론'(한국人による恥韓論)이다.

독자가 어떤 책을 원하는가는 베스트셀러의 경향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출판사가 한 권의 서적을 발행하는 이유는 그것 뿐만은 아니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출판불황'이 주요한 이유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996 년부터 시작된 출판 불황으로 '팔리기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다'는 풍조가 출판업계에 만연되고 있다[21]. 1990 년대까지 서점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잡지 판매는 편의점의 잡지 판매에 추월당했다. 경영난에 빠진 서점은 인원 정리를 단행했고 그 결과 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 서점에 혐한 서적이 산더미 처럼 쌓여서 판매되는 출판 붐을 만든 요인이라고 하겠다[22].

지금까지 혐한 서적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2014 년 11 월에 한국

[21] 산케이, '출판 불황과 대학 개혁 문화를 떠 받치는 교양의 위기' 2015 년 2 월 5 일.
[22] 마이니치, '특집 와이드: 출판불황과 편의점화 힘내라 우리들 서점' 2015 년 1 월 14 일자.

국회에서 혐한 서적 전시회가 열려[23], 일본의 출판업계에도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일본 출판 노동조합 연합회(출판노련)는 2014 년 7 월 4 일 '혐중증한(嫌中憎韓) 서적과 헤이트 스피치'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연설에서 가토나오키(加藤直樹)씨는 90 년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의 유언비어로 시작된 조선인, 중국인 대량학살은 민족 차별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혐한무드는 관동 대지진의 유언비어의 현대판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혐한 서적과 혐한 기사는 한국과 중국을 '옴 진리교'와 같이 사회의 이물질로 취급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몰아 낼려고 정해 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같은 혐한의 움직임은 인터넷의 여론에 선동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문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24].

혐한 서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정노력도 이뤄지고 있지만 혐한 서적의 출판은 이어지고 있다. 후소샤의 편집 담당자는 '방송이나 신문이 양국(한국, 중국)의 실정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잡지나 서적이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25]'고 언론에 혐한 출판 붐의 책임을 묻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가 한국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한 서적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 논리다. 신쵸샤 편집자 마쓰모토 후유키(松本冬樹)는 이런 논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쓰모토는 혐한 서적이 기존 언론의 삼성 예찬에 대한 반감이라고 혐한 서적의 출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수년전까지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의 약진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배워라는 내용의 서적이 많았는데 혐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안티테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혐한 서적은 반삼성론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중국이 싫은 것도 아닌데 필요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을 몰아세우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하 검토하도록 하겠다.

4-1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

혐한 서적에 대한 비판서는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さらば,ヘイトスピーチ"는 혐한 서적을 출판한 편집 프로덕션(편프로)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인터뷰 내용에서 집필을 의뢰한 출판사(판모토)와 내용을 만드는 편프로 간의 메카니즘이 들어난다. 들어난 메카니즘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집필을 의뢰한 출판사가 기사를 의뢰할 때 편프로에 대해서 편집 내용과 편집방침에

[23] 중앙일보 2014 년 11 월 22 일자.
[24] 마이니치, '출판 냉정하게 전달하는 노력 요구, 혐중/혐한에 이변, 일중 출판인과 교류' 2014 년 7 월 14 일.
[25] 산케이 2014 년 8 월 2 일. 디지털 산케이뉴스. 2016 년 12 월 1 일 검색

대해서 아래와 같은 2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을 찬미하지 않는다.' '주의 주장을 넣지 않는다.'

원고는 '한국은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문체로 작성되지만 그렇다고 '일본은 대단하다', '아베 정권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박근혜 대통령(당시)의 외교는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외교는 평가해야 만 한다'라는 식의 기사 작성은 하지 않는다. 서적의 타이틀과 제목은 그런 논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주장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팩트 증거(fact evidence) 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판에서 수집한 정보를 그래프와 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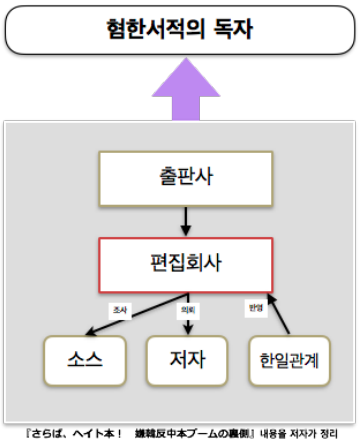


그림 33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

혐한 서적의 정보원은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 신문의 일본어판이다. 편프로의 담당자는 혐한 서적이나 기사를 집필할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일본어판을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편집자에게 있어서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 판은 좋은 꺼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물론,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판은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반일적인 기사나 한국의 사회문제만을 크게 다루고 있는 보도만을 선택한다.

4-2 혐한 서적의 출판 목적

혐한 서적의 출판은 출판사측과 저자측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출판사측은 보수적인 일본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로 혐한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저자들은 일본의 언론의 한국 보도가 한쪽의 목소리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혐한 서적을 집필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3 년에 간행된 '악한론'의 편집자는 '수년전까지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약진을 배경으로 한국에 배워라는 내용의 책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안티테제의 측면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카라지마샤(宝島社)가 편프로측에 제시한 기획 의도이다.

"보수층과 한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울분을 달랜다"

일본의 국어 사전에 따르면 울분을 달랜다(溜飲を下げる)는 것은 불평이나 증오를 해소해서 기분을 맑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보수층이 가지는 감정을 출판사가 그렇게 읽어내고 있다. 보수층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비판을 대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이용한 것이 혐한 서적이다.

개인 레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독자의 흥미와 독자가 가진 스테레오 타입에 상응할려고 하는 것이다. 2014 년 27 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매한론(呆韓論)' 저자 무로타니는 반일을 선동하고 있는 한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라고 출판목적을 밝히고 있다[26]. 무로타니는 1980 년에서 1985 년까지 시사통신 서울 특파원을 역임했다. 이때의 경험을 서술한 '악한론(悪韓論)'(2013)에서 한국인은 어떤 성격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나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로타니는 악한론에서 한류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일본 PR 이라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저자의 수준은 자신의 저서에 대한 신용을 떨어 뜨리기에 충분하다.

4-3 고찰

이상에서 혐한 서적의 출판 메카니즘과 혐한 서적의 출판 목적에 대해서 개관했다. 이상에서 검토한 메카니즘이 모든 혐한 서적의 출판에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혐한 서적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혐한 서적을 발행한 출판사의 순위를 보면, 2014 년 상위 6 위 중 5 개사가 4 권에서 6 권의 혐한 서적을

[26] 동서는 머릿말에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呆韓論이라고 책 제목을 정했다'고 적으면서 출판을 통해서 지식의 다양화, 시점의 다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출판하고 있다. 다카라지마샤(宝島社), 도쿠마쇼덴(徳間書店)은 6 권을 후소샤(扶桑社)는 5 권을 PHP 연구소와 쇼덴샤(祥伝社)는 각각 4 권씩 출판했다.

같은 테마의 책을 1 년에 4 권이나 출판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다. 테마를 세분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집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모든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출판사가 힘을 빌리는 것이 편프로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못했지만, 혐한 서적의 출판 붐을 가능케 한 것은 편프로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편프로의 사원은 혐한 서적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획을 외뢰받아도 집필에 응한다. 편프로는 자신들이 한국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에 상관없이 일을 따내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편프로의 집필자는 어떤 사람들이 혐한 서적을 읽는가를 문제 삼지 않고, 기획안을 내 놓은 출판사 담당자가 납품한 내용을 받아 들이는가 아닌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데올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납품해 주는 편프로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량의 혐한 서적이 출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을 싫어하지 않아도 편프로의 직원들은 혐한 서적을 집필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혐한 서적의 출판기획을 내 놓는 편집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혐한 서적을 제작한 편집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혐한 서적 출판 붐에 불을 붙인 '만화 혐한류'를 출판한 신유샤(晋遊舎)의 편집 담당자는 자신이 저자인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편집자는 인터넷에서 야마노를 발굴해서 연락을 취했다. 또 재특회의 사쿠라이 마코도(桜井誠)를 다카다 마코도(高田誠)에서 이름을 바꾸게 해서 혐한 서적을 출판했다. 그렇지만 혐한 서적의 출판 붐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혐한의 수명은 다했다고 단언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울분을 달랜다'는 편집의도는 이데올리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비지니스에 이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지 않을까. 신념을 가지고 혐한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곳은 사쿠라이 마코도의 대혐한시대(2014)와 쟈포니즘(2011 년~)을 출판하고 있는 세이린도(青林堂)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불황으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팔리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출판한다'는 것이 출판 이유라면 혐한 서적을 간행하는 곳은 경영이 어려운 영세 출판사 일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혐한 서적 출판 순위 상위 8 사에서 영세 출판사는 없다.

2016 년 상반기 서적 종합 순위 6 위인 다카라지마샤(혐한 서적 출판 순위 1 위), 19 위의 PHP 연구소(동 6 위), 4 위의 쇼가쿠간(小学館) (동 8 위)이다. 절반 정도가 대형 출판사이고 나머지 4 개사도 중견 출판사다.

마치며

본 연구는 혐한 무드를 배타주의로 취급해서 이에 불을 붙인 혐한 서적의 출판붐을 분석하고 혐한 서적과 기사가 일본인의 대한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의식조사에서 혐한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한국에 대한 경험'(외부적 요인),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내부적 요인), '인터넷 이용시간'(정보통로)의 3 가지를 설정했다.

혐한은 한국에 대한 민족차별 및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UN 의 인종차별 철폐조약 제 4 조에 대한 위반이다. 혐한은 헤이트스피치 데모의 슬로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일본) 이외를 배척'하는 배타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혐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배타주의와 차별을 생산해 내는 토양을 찾아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혐한 감정의 실체는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대립과 내셔널리즘의 등장과 관계되어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단기간에 이뤄진 현상이 아니고, 일본의 근대화 시기에 등장한 '아시아를 경시하고 서양과 어때를 나란히 하는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적 역사 경험의 잔류물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나 한국 중국에서 둥장하는 경계심이라는 단락적인 측면에서 혐한 현상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런 시점이라도 혐한 서적의 출판은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 본 연구를 위해서 수집한 혐한 서적의 80%가 2005 년 이후에 발행된 것만을 보더라도, 한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은 적지 않다. 게다가 베스트셀러에 혐한 서적이 등장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건전성을 위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런 충격적인 부분에 눈을 빼앗기면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다. 205 권의 혐한 서적은 55 개의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한국정치, 역사가 중요한 테마로 취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위안부, 영토문제, 역사문제가 많았고 다루고 있는 시기는 2002 년 이후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는 한류가 일본에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와 중복된다. 이들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다음 연구과제로 삼겠다.

본 연구의 의식 조사의 결과에서 한국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을 경험했는가 아닌가는 혐한 이미지, 행동, 혐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 사회, 정치에 대한 불만은 혐한 이미지와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혐한의식과는 관련성이 약하다. 그렇지만 혐한 데모는 일본 사회/정치에 대한 불만과 관련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국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례로서 파악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이용시간도 혐한 이미지와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혐한 출판물의 실체와 혐한 의식의 현황을 분석했다. 혐한 서적의 출판 붐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분석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혐한이 좀 더 보편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지면의 제약으로 분석내용의 많은 부분을 소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겠다. 다른 지면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참고 문헌

[1]. 裵淵弘. (2012). 『誰も教えてくれない韓国の「反日」感情』 牧野出版

[2]. 櫻井よしこ, 花田紀凱. (2015). 『「正義」の嘘：戦後日本の真実はなぜ歪められたか』 産経新聞出版

[3]. 崔碩栄. (2014). 『韓国人が書いた韓国で行われている「反日教育」の実態』 彩図社

[4]. 崔碩栄. (2014). 『「反日モンスター」はこうして作られた：狂暴化する韓国人の心の中の怪物〈ケムル〉』 講談社

[5]. 崔碩栄. (2012). 『韓国人が書いた韓国が「反日国家」である本当の理由』 彩図社

[6]. 李瑩珩. (2007). 『朝鮮人韓國人非韓國人：[反骨李瑩珩の]自傳的[現代史批判]』 チョンメディア

[7]. 柳舜夏. (2014). 『韓国人の癇癪 日本人の微笑み』 小学館

[8]. 野村旗守, 宮島理, 李策, 呉智英, 浅川晃広. (2007). 『ザ・在日特権』 宝島社

[9]. 野村旗守, 宮島理, 李策, 呉智英, 浅川晃広. (2006). 『嫌韓流の真実：ザ・在日特権 朝鮮人タブーのルーツから´民族団体の圧力事件´在日文化人の世渡りまで!』 宝島社

[10]. 北岡俊明, ディベート大学. (2006). 『嫌韓流ディベート：反日国家・韓国に反駁する』 総合法令出版

[11]. 北岡俊明, ディベート大学. (2005). 『嫌韓流ディベート 反日国家・韓国に反駁する』 総合法令出版

[12]. 北岡 俊明 (著), 北岡 正敏. (2014). 『韓国の大量虐殺事件を告発する―ベトナム戦争「参戦韓国軍」の真実』 展転社

[13]. 某国のイージス. (2015). 『韓国は未来に存続できるのか?：7つのヤバイ問題 』 アイバス出版

[14]. 某国のイージス. (2014). 『非韓五原則：こっち見んな来んな居座んな』 アイバス出版

[15]. 某国イージス. (2015). 『これで本当に日本と戦うつもりなのか 日本を仮想敵国とする韓国軍の実態』 サンクチュアリ出版

[16]. 某国イージス. (2014). 『非韓五原則 こっち見んな来んな居座んな』 アイバス出版

[17]. 某国イージス. (2014). 『韓国とかかわるな！韓国とかかわると人も国も必ず不幸になるーの法則』 アイバス出版

[18]. 豊田隆雄. (2015). 『本当は怖ろしい韓国の歴史』 彩図社

[19]. 豊田有恒. (2014). 『どの面(ツラ)下げての韓国人』 祥伝社

[20]. 豊田有恒. (2012). 『本当は怖い韓国の歴史』 祥伝社

[21]. 豊田有恒. (2012). 『韓国が漢字を復活できない』 祥伝社

[22]. 宝島編集部. (2012). 『嫌「韓」第二幕 作られた韓流ブーム』 宝島社

[23]. 編集部. (2016). 『ヤバイ! 韓国経済 絶望の真実』 宝島社

[24]. 編集侮. (2016). 『中国韓国反日妄言総まとめ = China and Korea's Anti-Japanese Ravings 2015-2016』 晋遊舎

[25]. 編集侮. (2016). 『世界大嫌韓時代 韓国の常識は地球の非常識 「強い韓国」はどこにいった！？』 ブレインハウス

[26]. 編集侮. (2015). 『すごくヤバイ! 韓国経済 2015』 宝島社

[27]. 平井敏晴. (2012). 『韓国人には ご用心』 三五館

[28]. 福垣利信. (2013). 『植民地時代から少女時代へ：反日と嫌韓を越えて』 太陽出版

[29]. 武貞秀士. (2013). 『韓国はどれほど日本が嫌いか』 PHP 研究所

[30]. 扶桑社. (2013). 『韓国の歴史教材『東アジア史』の真実』 PHP 研究所

[31]. 能川元一; 早川タダノリ. (2015). 『憎悪の広告：右派系オピニオン誌「愛国」「嫌中・嫌韓」の系譜』 合同出版

[32]. 日本戦略ブレイン. (2014). 『謀韓論　悪の反日国家はこうやって潰せ！』 晋遊舎

[33]. 日本戦略ブレイン. (2014). 『謀韓論：悪の反日国家はこうやって潰せ!』 晋遊舎

[34]. 唐沢俊一; 呉善花; 石平. (2012). 『～雑学プロファイル～ 日中韓 お笑い不一致』 徳間書店

[35]. 渡部昇一; 呉善花. (2014). 『日本と韓国は和解できない 「贖罪」と「幻想」からの脱却』 PHP 研究所

[36]. 渡部昇一; 呉善花. (2013). 『「近くて遠い国」でいい 日本と韓国』 ワック

[37]. 田中直毅. (2006). 『「反日」を超えるアジア：北京の目　ソウルの目』 東洋経済新報社

[38]. 鄭大均. (2012). 『韓国が「反日」をやめる日は来るのか：もはや怪物・韓国ナショナリズム』 牧野出版

[39]. 鄭大均 (編集); 古田博司. (2006). 『韓国・北朝鮮の嘘を見破る―近現代史の争点30』 文藝春秋

[40]. 長田鬼門. (2006). 『あばかれた反日感情』 中央公論事業出版

[41]. 長谷川豊. (2014). 『ワンピースに学ぶ反日問題 ルフィと仲間たちが教えてくれる歴史認識・差別・偏見の真実』 ヴィレッジブックス

[42]. 長谷川慶太郎. (2014). 『大破局の「反日」アジア　大繁栄の「親日」アジア:そして日本経済が世界を制する』 PHP 研究所

[43]. 仲新城誠. (2015). 『翁長知事と沖縄メディア：「反日・親中」タッグの暴走』 産経新聞出版

[44]. 中宮崇. (2007). 『嫌韓流！また韓国人か』 宝島社

[45]. 中宮崇; 中岡龍馬; 大月隆寛; 野村旗守; 宮島理. (2006). 『嫌韓流の真実：場外乱闘編：ネット報道　キテレツ写真　統計が炙り出す韓国人のリアルな生態』 宝島社

[46]. 中宮崇; 中岡龍馬; 宮島理; 二代目 TK 生. (2007). 『嫌韓流 2 また韓国人か』 宝島社

[47]. 竹田恒泰. (2014). 『笑えるほどたちが悪い韓国の話』 ビジネス社

[48]. 但馬オサム. (2015). 『韓国呪術と反日』 青林堂

[49]. 大泉実成; 木村元彦; 加藤直樹; 梶田陽介. (2015). 『さらば　ヘイト本！嫌韓反中ブームの裏側』 ころから

[50]. 大川隆法. (2014). 『朴槿恵韓国大統領なぜ　私は「反日」なのか：守護霊インタビュー』 幸福の科学出版

[51]. 大高未貴. (2014). 『日韓「円満断交」はいかが？～女性キャスターが見た慰安婦問題の真実～』 ワニブックス

[52]. 大月隆寛. (2005). 『マンガ嫌韓流の真実：〈韓国/半島タブー〉超入門』 宝島社

[53]. 大月隆寛; 野村旗守; 西村幸祐; 中宮崇; 宮島理. (2007). 『マンガ嫌韓流の真実』 宝島社

[54]. 太田修; 朴一. (2006). 『『マンガ嫌韓流』のここがデタラメ』 コモンズ

[55]. 多根清史. (2006). 『嫌韓 vs 反日のキーワード』 三才ブックス

[56]. 倉山満. (2013). 『嘘だらけの日韓近現代史』 扶桑社

[57]. 前川仁之. (2016). 『韓国「反日街道」をゆく：自転車紀行 1500 キロ』 小学館

[58]. 石平; 西村幸祐 (2014).『「反日」の敗北』イースト・プレス

[59]. 西尾幹二, 呉善花 (2015).『日韓悲劇の深層』祥伝社

[60]. 西村幸祐 (2012).『「反日」の正体：中国　韓国　北朝鮮とどう対峙するか』文芸社

[61]. 西村幸祐 (2006).『「反日」の超克：中国　韓国　北朝鮮とどう対峙するか』PHP 研究所

[62]. 西村幸祐 (2005).『「反日」の構造：中国　韓国　北朝鮮を煽っているのは誰か』PHP 研究所

[63]. 菅野朋子. (2012).『韓国窃盗ビジネスを追え：狙われる日本の「国宝」』新潮社

[64]. 菅沼光弘, (2015).『ヤクザと妓生が作った大韓民国：日韓戦後裏面史』ビジネス社

[65]. 水野俊平. (2014).『日・韓・中　トンデモ本の世界』サイゾー

[66]. 水野俊平. (2014).『笑日韓論』フォレスト出版

[67]. 水野俊平. (2007).『韓vs 日「偽史ワールド」』小学館

[68]. 真実ゆう子. (2013).『韓国朝鮮の正しい歴史　朝鮮半島を近代化させてしまった日本政府』Say True jp

[69]. 上島嘉郎 (2016).『韓国には言うべきことをキッチリ言おう! － いわれなき対日非難「サクサク反論」ガイド－ (ワニブックスPLUS 新書)』ワニブックス

[70]. 松木國俊 (2014).『こうして捏造された韓国「千年の恨み」』ワック

[71]. 松木國俊 (2013).『[新版]ほんとうは　日韓併合が韓国を救った!』ワック

[72]. 小野登志郎 (2015).『それでも東方神起には振るがない：病んでいく韓流女子と〝嫌韓の波』サイゾー

[73]. 小滝透 (2009).『「反日嫌韓」の謎』飛鳥新社

[74]. 勝又壽良 (2015).『韓国経済阿鼻叫喚＝South Korean economy will be Pandemonium：2016 年の衝撃』アイバス出版

[75]. 勝又壽良 (2014).『韓国経済がけっぷち～サムスンとともに自滅する韓国経済～』アイバス出版

[76]. 室谷克実 (2016).『日朝中世史恨みの起源：「恨み 1000 年」の深淵・日朝の真実をのぞく』宝島社

[77]. 室谷克実 (2015).『日朝古代史 嘘の起源』宝島社

[78]. 室谷克実 (2014).『ディス・イズ・コリア 韓国船沈没考』産経新聞出版

[79]. 室谷克実 (2013).『呆韓論』産経新聞出版

[80]. 室谷克実 (2013).『悪韓論』新潮社

[81]. 室谷克実 (2010).『日韓がタブーにする半島の歴史』新潮社

[82]. 室谷克実, 三橋貴明 (2014).『「妄想大国」韓国を嗤う』PHP 研究所

[83]. 室谷克実, 宮崎正弘, (2016).『悪あがきを繰り返し突然死の危機に陥る中国と韓国』徳間書店

[84]. 室谷克実, 黄文雄, 野村旗守, ほか. (2014).『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反日韓国100 のウソ』宝島社

[85]. 室谷克実, トニー・マラーノ. (2015).『没落する反日国家の正体：中韓同盟につける薬なし』ビジネス社

[86]. 山野車輪 (2015).『嫌韓道』ベストセラーズ

[87]. 山野車輪 (2015).『マンガ大嫌韓流』晋遊舎

[88]. 山野車輪 (2011).『マンガ嫌韓流 4』晋遊舎

[89]. 山野車輪 (2011).『マンガ嫌韓流 3』晋遊舎

[90]. 山野車輪 (2011).『マンガ嫌韓流 2』晋遊舎

[91]. 山野車輪 (2011).『マンガ嫌韓流 1』晋遊舎

[92]. 山野車輪 (2010).『外国人参政権など要らない：マンガ嫌韓流セレクション』晋遊舎

[93]. 山野車輪 (2005).『マンガ嫌韓流』晋遊舎

[94]. 山中恒 (2008).『反日という呪縛』勁草書房

[95]. 三橋貴明 (2014).『愚韓新論：断末魔の経済と狂乱反日の結末』飛鳥新社

[96]. 三橋貴明 (2014).『韓新論：断末魔の経済と狂乱反日の結末』飛鳥新社

[97]. 三橋貴明 (2013).『いよいよ 韓国経済が崩壊するこれだけの理由』ワック

[98]. 三橋貴明 (2012).『グローバル経済に殺される韓国打ち勝つ日本』徳間書店

[99]. 三橋貴明 (2011).『サムスン栄えて不幸になる韓国経済』青春出版社

[100]. 三橋貴明 (2007).『本当はヤバイ!韓国経済―迫り来る通貨危機再来の恐怖』彩図社

[101]. 三橋貴 渡邉哲也 (2009).『完全にヤバイ!韓国経済』彩図社

[102]. 桜井誠 (2014).『大嫌韓時代』青林堂

[103]. 桜井誠 (2014).『ジャパニズム』青林堂

[104]. 桜井誠 (2009).『反日韓国人撃退マニュアル』晋遊舎

[105]. 桜井誠 (2006).『実践ハンドブック嫌韓流反日妄言撃退マニュアル 』晋遊舎

[106]. 桜井誠 (2006).『嫌韓流反日妄言撃退マニュアル：実践ハンドブック』晋遊舎

[107]. 桜井誠 (2006).『嫌韓流 実践ハンドブック2 ～反日妄言半島炎上編～』晋遊舎

[108]. 桜井誠, 山口敏太郎 (2015).『超嫌韓論』青林堂

[109]. 黒田勝弘 (2016).『韓国はどこへ?』海竜社

[110]. 黒田勝弘 (2015).『決定版どうしても“日本離れ”できない韓国』文藝春秋

[111]. 黒田勝弘 (2013).『韓国反日感情の正体』角川学芸出版

[112]. 呉善花 (2016).『「反日韓国」の苦悩：老いも若きも未来に希望がない』PHP 研究所

[113]. 呉善花 (2015).『朴槿恵の真実：哀しき反日プリンセス 』文藝春秋

[114]. 呉善花(2015).『日韓併合を生きた15 人の証言：「よき関係」のあったことをなぜ語らないのか』桜の花出版

[115]. 呉善花 (2014).『侮日論：「韓国人」はなぜ日本を憎むのか』文藝春秋

[116]. 呉善花 (2014).『もう この国は捨て置け!』ワック

[117]. 呉善花 (2014).『「反日韓国」の自壊が始まった』悟空出版

[118]. 呉善花 (2013).『反日・愛国の由来：韓国人から見た北朝鮮』PHP 研究所

[119]. 呉善花 (2013).『なぜ反日韓国に未来はないのか』小学館

[120]. 呉善花 (2012).『虚言と虚飾の国・韓国』ワック

[121]. 呉善花 (2012).『「見かけ」がすべての韓流：なぜ 大統領までが整形するのか』ワック

[122]. 呉善花 (2008).『韓国倫理崩壊1998-2008：社会を蝕む集団利己主義の実情』三交社

[123]. 呉善花 (2006).『「反日・親北」をやめられない韓国の暴走』小学館

[124]. 呉善花 (2005).『「反日・親北」韓国の暴走：「韓流ブーム」ではわからない』小学館

[125]. 呉善花 黄文雄 石平 (2014).『日本人は中韓との「絶交の覚悟」を持ちなさい 石平(中国)が黄文雄(台湾)呉善花(韓国)に直撃』李白社

[126]. 呉善花 黄文雄 石平 (2013).『日本人の恩を忘れた中国人・韓国人の「心の闇」：呉善花(韓国)が黄文雄(台湾)石平(中国)に直撃』李白社

[127]. 呉善花 石平 (2015).『反日をやめたら成り立たない国・韓国』ワック

[128]. 古田博司 (2014).『醜いが 目をそらすな 隣国・韓国』ワック

[129]. 古田博司 (2005).『東アジア「反日」トライアングル』文藝春秋

[130]. 古谷経衡 (2014).『知られざる台湾の「反韓」：台湾と韓国が辿った数奇な戦後史』PHP 研究所

[131]. 古谷経衡 (2014).『もう 無韓心でいい』ワック

[132]. 古谷経衡 (2014).『クールジャパンの嘘：アニメで中韓の「反日」は変わらない』総和社

[133]. 古谷経衡 (2013).『ネット右翼の逆襲――「嫌韓」思想と新保守論』総和社

[134]. 古森義久 (2013).『中・韓「反日ロビー」の実像 いまアメリカ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PHP 研究所

[135]. 拳骨拓史 (2014).『韓国「反日謀略」の罠』扶桑社

[136]. 拳骨拓史 (2013).『「反日思想」歴史の真実』扶桑社

[137]. 拳骨拓史 (2012).『韓国人に不都合な半島の歴史』PHP 研究所

[138]. 拳骨拓史 (2011).『日中韓2000 年の真実』扶桑社

[139]. 金文学 (2005).『「反日」という甘えを断て：韓国民に告ぐ!!』祥伝社

[140]. 金智羽 (2015).『なぜ日本人は韓国人にこんなになめられ続けるのか？』サイゾー

[141]. 金慶珠 (2014).『嫌韓の論法』ベストセラーズ

[142]. 宮脇淳子 (2014).『悲しい歴史の国の韓国人』徳間書店

[143]. 宮脇淳子 (2013).『韓流時代劇と朝鮮史の真実 朝鮮半島をめぐる歴史歪曲の舞台裏』扶桑社

[144]. 宮脇淳子, 倉山満 (2014).『真実の朝鮮史：663-1868』ビジネス社

[145]. 宮脇淳子, 倉山満 (2014).『真実の朝鮮史：1868-2014』ビジネス社

[146]. 宮脇 淳子 (2013).『韓流時代劇と朝鮮史の真実 朝鮮半島をめぐる歴史歪曲の舞台裏』扶桑社

[147]. 宮崎正弘, (2014).『中国・韓国を本気で見捨て始めた世界：各国で急拡大する嫌中・嫌韓の実態』徳間書店

[148]. 宮崎正弘, (2014).『中国・韓国を本気で見捨て始めた世界：各国で急拡大する嫌中・嫌韓の実態』徳間書店

[149]. 宮崎正弘, 室谷克実 (2014).『中良く自滅する中国と韓国: 暴走と崩壊が止まらない!』徳間書店

[150]. 吉井英一, (2008).『韓国はなぜ反日なのか：内側から見た韓国の"真実"』彩図社

[151]. 鬼塚英昭(2014).『「反日」の秘密:朝鮮半島をめぐる巨大な謀略：安倍首相も朴大統領も知らない』成甲書房

[152]. 黄文雄 (2015).『嫌韓論：世界中から嫌われる韓国の「小中華思想」の正体』宝島社

[153]. 黄文雄 (2015).『売中韓論：中国・韓国の「反日情報工作」に打ち克つ日本　　』イースト・プレス

[154]. 黄文雄 (2015).『それでもなぜ　反日大国の中国人　韓国人は日本に憧れるのか?』海竜社

[155]. 黄文雄 (2014).『立ち直れない韓国』扶桑社

[156]. 黄文雄 (2014).『悪韓論』徳間書店

[157]. 黄文雄 (2014).『犯中韓論』幻冬舎ルネッサンス

[158]. 黄文雄 (2014).『犯韓論』幻冬舎ルネッサンス

[159]. 黄文雄 (2014).『日本を取り戻す：アベノミクスと反日の中国・韓国』光明思想社

[160]. 黄文雄 (2014).『中国・韓国が死んでも隠したい本当は正しかった日本の戦争』徳間書店

[161]. 黄文雄 (2014).『終韓論』ベストセラーズ

[162]. 黄文雄 (2014).『なぜ韓国人・中国人は「反日」を叫ぶのか』宝島社

[163]. 黄文雄 (2013).『日本人が絶対に理解できない中国人と韓国人：やっぱりこんなに違う!』徳間書店

[164]. 黄文雄(2013).『中国人と韓国人が作った「インチキ神話」に操られる日本人!：本当に恐ろしいのは「反日日本人」だ』ヒカルランド

[165]. 黄文雄 (2013).『韓国人に教えたい日本と韓国の本当の歴史』徳間書店

[166]. 黄文雄 (2013).『なぜ中国人・韓国人は「反日」を叫ぶのか』小学館

[167]. 黄文雄 (2012).『日本を呪縛する「反日」歴史認識の大嘘』徳間書店

[168]. 黄文雄 (2012).『韓国・北朝鮮を永久に黙らせる100問100答』ワック

[169]. 黄文雄 (2012).『「慰安婦問題」は韓国と朝日の捏造だ：100問100答』ワック

[170]. 黄文雄 (2005).『中国・韓国反日歴史教育の暴走』海竜社

[171]. 黄文雄 (2005).『中国・韓国が死んでも教えない近現代史』徳間書店

[172]. 黄文雄, 呉善花, 石平, (2013).『売国奴＝TRAITORS：なぜ中韓は反日を国是とするのか』ビジネス社

[173]. 井沢元彦, 呉善花 (2013).『困った隣人韓国の急所』祥伝社

[174]. 井沢元彦, 呉善花 (2012).『やっかいな隣人韓国の正体：なぜ「反日」なのに　日本に憧れるのか』祥伝社

[175]. 井沢元彦, 呉善花 (2006).『やっかいな隣人韓国の正体：なぜ「反日」なのに　日本に憧れるのか』祥伝社

[176]. 井上和彦, 金慶珠 (2014).『悪韓論VS悪日論：日本と韓国はどちらが嘘をついているのか』双葉社

[177]. 安田浩一,岩田温,古谷経衡,森鷹久. (2013). 『ヘイトスピーチとネット右翼：先鋭化する在特会』オークラ出版

[178]. ヘンリー・S・ストークス 著, 藤田裕行. (2015). 『外国特派員協会重鎮が反日中韓の詐偽を暴いた』悟空出版

[179]. シンシアリー. (2016). 『韓国人による嘘韓論』扶桑社

[180]. シンシアリー. (2015). 『韓国人による震韓論』扶桑社

[181]. シンシアリー. (2014). 『韓国人による沈韓論』扶桑社

[182]. シンシアリー. (2014). 『韓国人による恥韓論』扶桑社

[183]. シンシアリー. (2015). 『韓国人が暴く黒韓史』扶桑社

[184]. シンシアリー. (2014). 『韓国人による恥韓論』扶桑社

[185]. ご隠居. (2014). 『息をするように嘘をつく韓国』宝島社

[186]. ケント・ギルバート, 室谷克実, 石平. (2015). 『反日同盟中国・韓国との新・歴史戦に勝つ!』悟空出版

[187]. ケント・ギルバート, 室谷克実, 石平. (2015). 『中国・韓国との新・歴史戦に勝つ!：反日同盟』悟空出版

[188]. イースト・プレス特別取材班.(2005). 『徹底検証!中国・韓国の歴史教科書：彼らは なぜ反日運動に生命をかけるのか?』イースト・プレス

[189]. SAPIO 編集部. (2014). 『日本人が知っておくべき嘘つき韓国の正体』小学館

[190]. KAZUYA. (2014). 『反日日本人：韓国・中国だけが敵じゃない!』青林堂

[191]. KAZUYA.(2014). 『ここがヘンだよ「反日」韓国彼らがウソをつくほど日本が得をする法則』イースト・プレス